



3 Interview

특별 인터뷰

故 노회두 동문 동생 노희대 동문

4·19혁명의 주역 노회두 동문의 생전의 삶과 유족이 기억하는 4·19혁명의 의의를 들어본다

동대신문

금주의

마음은 불안하여 흔들리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어진이는 마음을 굳게 지키기를 마치 활쟁이가 화살을 '곧게 만들듯이' 올바르게 한다.

법규경 제3장 마음편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92호 2010년 (불기 2554년) 5월 3일 월요일



작가 김대열(金大烈) 교수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우리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국립 대만사범대학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고고미술사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실기(한국화)와 이론(동양회화사)을 겸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100여 차례의 국내외 크고 작은 단체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미술학부 한국화과정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금주의 동대신문

3 동국 가족상 수상자 인터뷰

6 미래기획위원회 동국비전 2020(안) 특별기고

12 중국 선찰(禪刹) 답사 사진전

개교기념일로 인해 다음 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1493호는 오는 5월 17일자에 발행되오니,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바랍니다.



세상을 비추는 힘 | **dongguk UNIVERSITY**

내 열정은 무한대* 세상의 기대보다 더 큰 내가 되고 싶다

너의 열정에 플러스-동국

- >> 국고지원사업 수주 600억 돌파
- >> 산학협력 중심대학 선정
- >>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사업 선정
- >> 미래 유망 융합기술 파ioni어 사업선정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대학원명	원서접수일자	전형일시	홈페이지주소
일반대학원	5.12(수)~18(화)	5.29(토)	http://gs.dongguk.edu
경영전문대학원	6.7(월)~25(금)	7.3(토)10:00	http://mba.dongguk.edu
영상대학원	5.19(수)~28(금)	6.5(토)10:00	http://dic.dongguk.edu
불교대학원	5.10(월)~25(화)	6.5(토)10:00	http://gsbs.dongguk.edu
법무대학원	5.10(월)~24(월)	5.26(수)19:00	http://gslaw.dongguk.edu
행정대학원	5.10(월)~20(목)	5.29(토)14:00	http://gspa.dongguk.edu
교육대학원	5.10(월)~16(일)	5.29(토)10:00	http://gsedu.dongguk.edu
문화예술대학원	5.10(월)~21(금)	5.29(토)09:00	http://gsca.dongguk.edu
언론정보대학원	5.10(월)~26(수)	5.29(토)10:00	http://gsci.dongguk.edu
국제정보대학원	5.10(월)~26(수)	5.29(토)14:00	http://gsiai.dongguk.edu

개교 104주년 기념 축사

원융과 화합의 정신으로 전진하길



정련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오늘은 우리 대학이 개교 10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1906년 명진학교로 출발한 동국대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불교교육의 근대적 발상지로서 그 연면한 전통은 우리 사회의 변역을 이끈 학문의 최고 전당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104년 전통의 명문사학입니다. 이러한 동국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은 1천 6백년 한국 불교정신과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한국불교의 정신은 상구보리(相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중생과 깨달음의 추구를 통하여 일체중생을 제도한다는 큰 뜻과 함께 원융과 화합이라는 시대정신을 가진 위대한 교육이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동국대학교 만큼 우리사회를 위해 크게 기여한 대학도 흔치 않습니다. 일제시대 국운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휘청일 때, 대중을 일깨워 자주독립의 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앞장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앞당겼고, 해방 후에는 민주주의와 국가근대화에 앞장서온 자랑스런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

다. 이에 저는 개교 104주년을 기념해 여러 학내구성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보리수 금강좌(金剛座)에서 위대한 중도(中道)의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학내 여러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용맹정진의 자세로 각자 맡은 분야에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주시길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일체의 생명과 우주삼라만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높은 학문적 도야의 결과를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높은 수준의 대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물코처럼 얽힌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는 아무리 깨달음의 경지가 높다 하더라도 소통되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또 다른 독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승한 깨달음과 높은 지식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상대방의 근기에 맞게 설득하고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대기설법(對機說法)을 하셨습니다. 글을 모르는 이에게는 대화와 감성으로, 높은 지식을 가진 이에게는 합리적인 논증과 설득으로 깨달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대학은 고도의 전문화된 사회입니다. 우리가 대학의 발전을 이루려면 높은 수준의 비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전문분야 별로 흠어져 있는 많은 학내구성원들의 마음과 뜻이 어디있는지를 살피고 보듬어 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대학의 뜻깊은 생일을 맞이하여 학내구성원들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미래 위해 고군분투해야



오 영 교
동국대학교 총장

우리 대학 캠퍼스인 남산 자락의 풍광이 참으로 향기롭고 화사한 5월, 우리는 개교 104주년의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맞이하지만 금년에는 더욱 벅찬 감회로 다가오는 바입니다.

항상 새로운 역사를 일군다는 신념으로 한결같이 매진해온 우리 구성원들은 ‘해야만 한다’와 ‘하면 된다’는 소명의식과 자신감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동국의 그윽한 전통과 역사의 자부심으로 충만한 에너지로 동국변혁의 대역사를 새롭게 건설하는 보람의 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고심하여 원력을 세운 바, 108프로젝트를 선포한 이래 그 모든 과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당위성으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부단히 지향해온 결과, 지금 우리는 108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수행되어 마침내 대단원의 절정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대학경영시스템과 모범적인 학사운영시스템을 이미 완비함으로써 고수 전진의 기틀을 다져

놓았습니다. 그러한 인프라의 구축을 근저로 하여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 건설도 진행되고 있으며, 교내 지하주차장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리모델링도 성공적으로 지속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숙원이었던 정문 진입로 확장과 운동장 및 수영장 부지의 캠퍼스화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음을 보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약학대학을 유치함에 따라,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의 당위성은 한층 더 공고해졌으며, 지난 4월 29일에 바이오관과 약학관을 건설하는 기공식을 성대히 치렀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모두가 염원해왔던 일산캠퍼스의 청사진이 장엄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파노라마는 우리 동국인 모두의 결집된 힘과 땀의 결과입니다.

진정 그 동안 우리는 동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용맹정진의 길을 한 눈 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고동치는 심장과 용솨움치는 힘줄의 노고를 필요로 하는 여러 기대와 소망들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동국은 아직 그 변혁의 바퀴를 멈출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일과 소승적 자만에 주춤한다면 동국의 시계는 또다시 퇴역의 자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봉사와 헌신을 약속하는 결연한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국 가족 여러분! 이제 새로운 미래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합심협력으로 우리 동국대학교는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동국 발전의 대의를 위해 오로지 우리는 미래를 꿈꾸고, 그 실현을 위해 분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학교발전과 위상정립 위해 다함께 발맞춰야



이 언 택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우리 대학교가 개교104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0만 전 동문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설립하고 중흥시킨 불교계 선각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학문적 성취와 학교 발전을 위해 현재까지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동국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교는 지난 104년이란 오랜 시간동안 20만 여명이 넘는 동문들을 배출하며 명실상부 국내 불교종립대학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또한 모교 동문들은 지난 역사 속의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호국 수호자로서 앞장을 서 왔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세우기 위한 임원을 담아 학생운동 등에서도 선두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동문들은 사회 각 계에서 활약하며 모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104년을 토대로 새로운 100년과 좀 더 높은 위상의 모교를 위해 다함께 발맞춰 나가야 할 때입니다. 최근 대학 사회의 환경은 글로벌화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교도 이 변화에 맞춰 국내명문사학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굳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과 종단, 교직원, 재학생, 총동창회가 힘을 합쳐 ‘학교발전과 위상정립’을 목표로 화합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총동창회도 이를 뒷받침하며 모교의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현재 후배 양성 및 모교 발전 지원을 위해 장학기금 확충, 교수연구비 지원, 장학센터 건립 및 교문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100여년이 넘는 모교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학문적 수준과 모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시고! 지금까지의 104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국 구성원들이 모두 화합해 나간다면 우리의 노력을 담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개교 104주년을 축하드리며 동국 가족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더 큰 도약 준비하길



허 남 결
교수회장 철학윤리문화학부 교수

동국대학교가 개교한 지 올해로 104년이 된다고 하니,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머쓱해지기도 한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는 우리 학교가 나이에 비해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회일각의 냉정한 평가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보다는 지난 몇 년 동안 동국인들에게 같은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보다는 오히려 자괴감을 들게 하는 일이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대학도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가 됐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학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른바 ‘개혁-혁신정책’을 경쟁하듯이 내세우는 것은 한마디로 좆대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학마다 설립목적과 고유의 문화 및 지향점이 다르고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 그와 같은 조건에 부응하는 독자적 발전모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진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용히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대학다운 발상이다. 그런데 그동안 대학본부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시골벽적이고 요란스러웠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대학순위와 사회적 평판도 등 그 어떤 지표에서도 우리대학은 뒷걸음질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우리는 학생들을 금방 눈에 띄는 화려한 대기업 제품은 아니더라도 사회 곳곳에서 꼭 필요로 하는 동국 대형 최우수 중소기업제품으로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단계들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다보면 어느 시점에서인가 우리 대학은 말 그대로 일류대학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장기적 안목의 동국비전이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동국비전 2020’ 선포식과 같은 장식용 행사는 굳이 계획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끝으로 600여명의 교수회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104주년 개교기념일을 축하드리고 동시에 학교당국에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소리 없는 준비작업을 주문해 본다.

변화와 혁신이란 가치를 향해 달려갈 때



원 충 희
동국대학교 직원노조위원장

우리 대학이 올해로 개교 104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 봄의 사회 정세가 우리들을 다소 우울하고 걱정스럽게 만들었습니다만,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동국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평온함이 되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최근 ‘스마트폰’ 열풍이 급속도로 퍼져가는 현상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놀라움을 넘어 내 자신이 너무 빠르게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아울러 변화라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의 사안은 될 수 없으며 또한 나의 의지로 그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 또한 들곤 합니다.

각종 정량 평가에 의해 현재의 대학 서열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고 글로벌화의 가속화 속에서 몇몇 경쟁하고 있는 대학들은 막대한 재정 투자를 통해 대학 이미지의 탈바꿈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대학도 ‘변화와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일산 의생명과학 캠퍼스 2단계 사업도 착공되는 등 약대 유치를 계기로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일들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변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우리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제 주체들 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한 절대 버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교계 선각자들의 건학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오늘의 동국대학교가 있게 해 준 수많은 선배님들과 훗날의 후배들이 우리 대학의 풍요로운 미래를 즐길 수 있도록 직원 노동조합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학의 개교 104주년을 전 구성원과 함께 축하드리면서, 동국가족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4년 전통에 걸맞는 위상 되찾아야



박 인 우
총학생회장 윤리문화학과

작년 이맘때 즈음만 해도, 학교를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3년째 되는 학교와의 마찰을 겪은 상태에서 드는 생각은 아쉬움과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나 자신에게 좋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로서 남고 올바른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최대한 자신이 지닌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데도 우리 삶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먹고 나니 학교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학교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나 놓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 학우들과 함께 채워나가기 위해 애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이전과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은 우리학교의 개교 10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년의 개교기념일과는 달리 올해는 축하까지 쓰며 학교의 개교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104년 동국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역사처럼 질곡의 역사였음에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104년의 긴 역사를 가진 만큼 대학의 명성과 위상이 늘어나지는 못하였습니다. 명문사학으로 첫걸음을 시작한 이후 현재에는 예전만큼의 위상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의 위상을 찾기 위해 동문부터 학생까지 동국의 구성원이 모두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하는 지금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동국의 구성원이 만족할 만한 정책은 무엇이며 동국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한 노력과 자구책을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104년이란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학교의 자부심과 배우려는 열정으로 104년에 걸맞는 대학생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특별인터뷰 - 흉상 제막식 앞둔 故 노희두 열사 동생 노희대 동문 인터뷰

“우리 형은 과묵했지만 불의보면 참지 못했던 의리파”

생전의 노희두 열사에 대한 회고 ... “후배들이 잊지 말고 정의로운 선배 유지 계승해 주길”



▲노희대(범64 졸업) 동문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抗拒)한 1960년 4·19혁명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사건이다.

우리대학 또한 4·19혁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 4월 19일, 우리대학 학생들은 동국대학교의 이름이 적힌 붉은 현수막을 앞세우고 경무대, 즉 지금의 청와대로 돌진했다. 경무대 앞에는 수백 명의 무장경관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다. 우리대학 학생들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전진해 나갔다. 그러자 경무대 앞의 무장한 군경들이 무자비하게 발포해 우리대학 법학과 3학년 고(故) 노희두 열사가 산화(散華)했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목숨을 걸었던 4·19혁명에서 노희두 열사는 우리대학이 흘렸던 피와 그날의 결의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의 희생을 후대에도 기리고자 동국대 4.19혁명유공계승자회는 내일(4일) 동우탑 옆에 노희두 상(像)을 건립한다. 이렇듯 우리대학 4·19혁명의 상징인 노희두 열사를 많은 선·후배, 동기들은 4월마다 추모하지만, 그의 생전의 모습과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 알려진 바는 그리 많지 않다.

동대신문은 고(故) 노희두 열사의 동생인 노희대(범64졸) 동문을 만나, 노희두 열사의 생전 모습과 노희두 열사의 희생이 오 늘날 4.19혁명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들어왔다.

노희두·노희대 동문은 충청남도 서천 출생으로 3남 2녀 중 각각 장남·차남이다. 이제 백발이 성성한, 일흔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그리운 형님에 대한 기억은 생생하기만 하다. 노희두(1939년생)·노희대(1942년생) 형제는 어릴 적부터 두터운 우애를 자랑했다. 나이차가 많지 않아 다른 동기들보다 더욱 절친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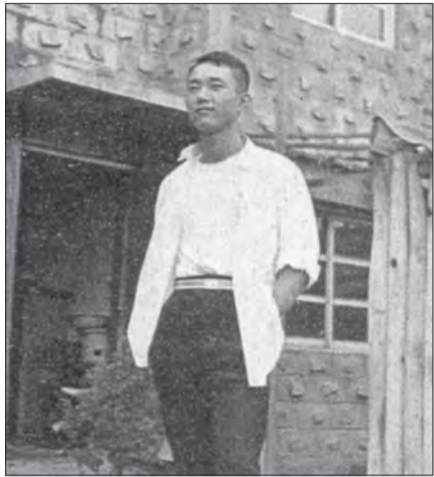
생전의 형은 어떤 인물이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노희대 동문은 “형은 한마디로 의리파”라고 정의(定義)했다. 노희두 열사는 평소에는 과묵하고 예의바른 청년이었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않고 무조건 나섰다. 또 노희두 열사는 형에 대해 “리더십이 강해 항상 친구들과 사이에선 소위 ‘왕초’ 역할을 도맡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의협심이 강한 노희두 열사가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에 동참했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독재에 항거한 노희두 열사

1960년, 당시 법학과 3학년생이었던 노희두 열사는 장래의 법조인을 꿈꾸며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있던 차에 3·15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마산에서의 시위, 고(故) 김주열 학생의 시신 발견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가 오를 대로 오를 상황이었다.

4월 19일 당일,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던 노희두 열사는 의기에 찬 동기, 선·후배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경무대로 향하는 와중에도 노희두 열사는 한치의 망설임은 커녕 누구보다 앞장서서 행렬의 선두에 섰다. 당시의 상황을 전해들었던 노희대 동문은 “4.18 시위때만해도 사망자가 없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형의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의 심정을 토로(吐露)했다. 노희두 열사는 계엄령 선포 이후 즉각 시행된 발표명령에 희생당해 첫 번째 4·19혁명 사망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희두 열사는 발표명령이 떨어진 오후 1시에 바로 총격을 받고 백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숨을 거두고 말았다.

형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함께 상경(上京)한 노희대 동문은 형의 시신을 보고 독재정권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었다.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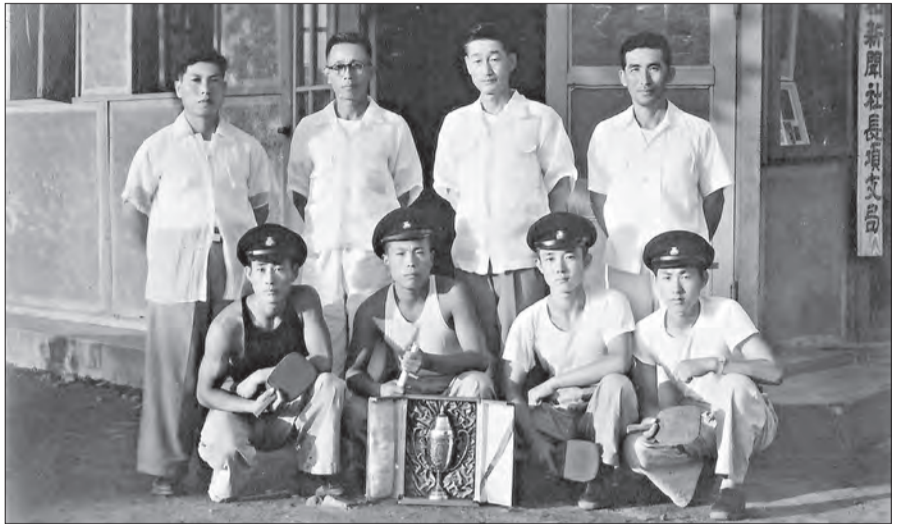


▲노희두 열사

족이 노희두 열사의 시신을 살펴보니 탄환이 흉부 바로 밑을 꿰고 척추까지 관통했다고 한다. 노희대 동문은 “코앞에서 발포하지 않는 한 그런 총상이 나올 수 없다”고 독재정권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듣직한 아들, 자랑스러운 형을 잃은 유족들의 애통함은 노 열사의 동기, 선후배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었다. 형의 싸늘한 주검 앞에 유족들의 애통한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는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형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저민다”며 비통한 마음을 나타냈다.

유족으로서 형의 유지 이어

하지만 고(故) 노희두 열사를 위해서라도 유족들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노희두 열사의 아버지 노종래 씨는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초대 이사장(현재 회장직)을 맡았고, 혁명재판소에서 정부측 타검사로 활동하며 4·19혁명의 희생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노희대 동문이 동국대와 인연을 맺은 것도 이때부터다. 학교 측에서 유족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노희대 동문에게 형의 유지를 이어나갈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노희대 동문은 “억울하게 죽은 형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대학의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비록 형의 유지를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했지만 노 동문은 형과 같은 교정을 거닐며 형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평생토록 지니고 살아갈 수 있었다.



▲장항농업고등학교 재학시절 출전했던 군 탁구대회에서 우승 한 후 기념사진을 찍은 노희두 열사(앞줄 오른쪽 두번째) (위) ▲노희두 열사(왼쪽)가 유족 형과 함께 찍은 사진(아래)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고(故) 노희두 열사의 유족으로서 항상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다. 바로 유족들에 대한 정부와 유족회의 태도다. 현재의 법령상 방계 가족인 노희대 동문은 유족으로서 어떠한 대우도 받을 수 없다. 올해에 들어서야 국가보훈처나 유족회로부터 4·19추모 행사 초청장이 왔을 뿐, 이전만 하더라도 유족회나 국가보훈처에서 방계 가족이라는 이유로 외면 받았다. 노 동문은 “4·19혁명 희생자 많은 사람들이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은 학생들이다”며 “방계 가족들을 배제하면, 희생자들을 추모할 유족의 명맥이 끊어진다”며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고(故) 노희두 열사의 고향인 서천에서는 매년 4월 19일마다 노희두 열사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연다.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에서도 매년 4.19 추모 행사 때마다 노희두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노희대 동문은 “50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이들이 형의 유지를 이어나가서 기쁘다”고 말했다. 다만 노 동문은 “요즘 젊은이들이 4.19혁명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4.19혁명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노희두 열사의 숭고한 정신이 없었더라면 민족사학 동국대라는 영예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의 꺼지지 않는 순수한 의기를 이번 흉상 건립과 함께 다시한번 동국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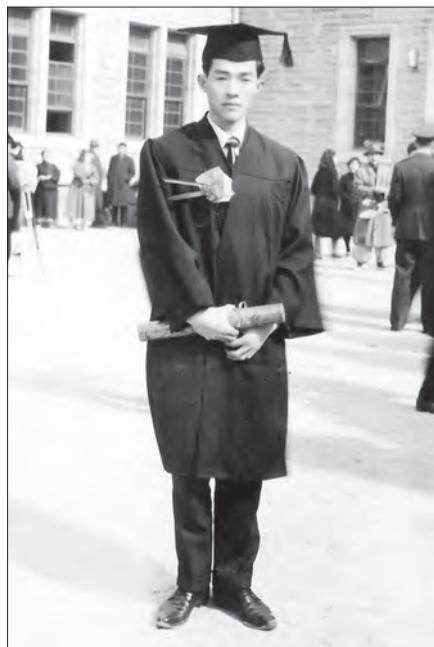
정웅재 기자

wonder@dongguk.edu

제3회 동국가족상 수상자 인터뷰

“동국인, 우리가족을 이어주는 또 다른 이름”

부인 · 자녀 · 사위 · 며느리, 서성래 동문의 권유로 동국과 인연



▲동국인연의 시작이 된 서성래 동문의 졸업사진.

불교에는 “웃기만 스쳐도 인연(因緣)”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아버지의 인

연으로 시작으로 9명의 가족이 동국과 계속해서 인연을 맺고 있는 가족이 있다. 바로 제 3회 동국가족상을 수상한 서성래(생물63졸) 동문 가족이다.

서성래 동문의 가족은 부인을 비롯해 슬하 1남3녀, 두 명의 사위, 그리고 며느리까지 총 9명의 가족 구성원이 우리대학을 거쳐간 동국인이다.

우리대학과 첫 인연을 맺은 건 아버지 서성래 동문. 서 동문은 63년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경영대학원, 두 차례의 행정대학원에서의 공부 등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대학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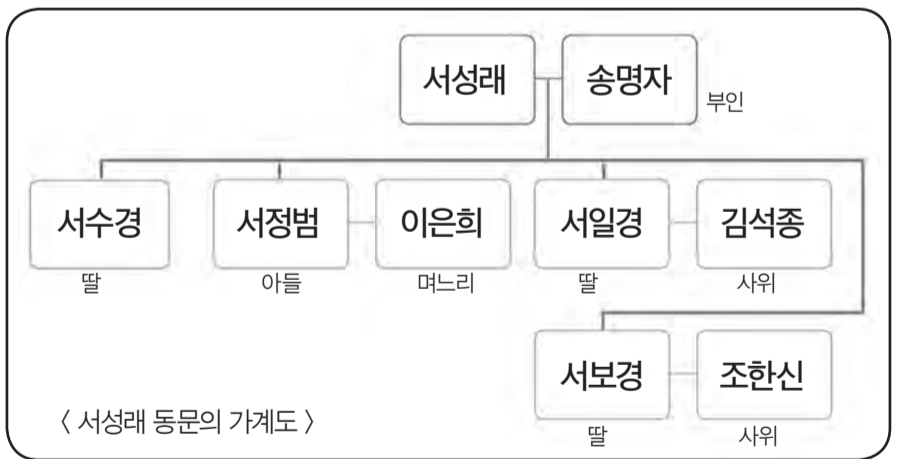
처음 대학에 입학한 서성래 동문은 당대 최고의 생물학자인 ‘쥐박사’ 원병희 교수의 수업을 들으며 생물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다고 한다. 그는 “채집을 위해 전국 방방곳곳 안 가본 곳이 없어”라며 “현미경을 이용해 보면 안 신기한 것이 없었지”라고 했다.

더불어 서정주, 양주동 교수 등 당대의 화려한 교수진의 교양강의도 그의 열정적인 학교생활에 한 몫 했다. 생물학도였던 그에게 문학적 소양을 키워준 것은 모두 교양강

수들 덕분이었다. 그는 “서정주 선생님의 강의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대학 교수들과 돈독(敦篤)한 관계를 맺었다. “양주동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맥주 한 박스를 받고 주례를 해준다고 할 정도로 학생들과 가까이 지냈지”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러한 우리대학의 교수와 제자 사이의 깊은 관계는 그가 자식들에게 우리 대학을 믿고 추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서성래 동문의 첫째 딸인 서수경(가정교육87졸) 동문과 둘째 딸 서일경(경주, 중문90졸) 동문 모두 당시 다른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아버지의 우리대학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믿고 동국대를 선택했다. 아들 서정범(물리92졸) 동문과 막내 딸 서보경(경주, 한문93졸) 동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성래 동문의 부인인 송명자 여사 역시 서 동문의 권유로 동국인이 된 경우다. 가정교사와 제자의 관계로 시작한 그들은 동국을 매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한다. 송 여사가 동국대에 가기 위해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애정이 싹트었다고. 결국 송 여



사는 고려대 심리학과 진학을 포기하고 재수 끝에 우리대학 국문과에 입학했다. 이를 계기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살림에 매진하느라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송 여사는 아직까지도 당시 학업을 마치지 못해 후회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서성래 동문 가족의 우리 대학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막내딸 서보경 동문은 동악에서 지금의 남편인 조한신(경주, 한문94졸) 동문을 처음 만나 결혼했다. “당시 남편이 학과 대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경우가 많았어요”라며 “자주 만나니 자연스럽게 감정이 싹텄어요”라고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조한신 동문은 “결혼 후 처가식구들이 모두 동국인일 걸 알고 더욱 가깝게 느껴졌어요”라며 웃었다. 공군으로 재직 중이던 둘째 딸

서일경 동문의 남편인 김석종(행정대학원 99졸) 동문도 장인어른인 서성래 동문의 권유로 우리대학 대학원에 입학하게 됐다. 이렇게 해 큰 사위를 제외한 총 9명의 가족구성원이 동국가족이 됐다.

가족 중 총 9명이 동국인인 서성래 동문 가족에게 동국은 특별한 의미다. 둘째 딸 서일경 동문은 “저에게 대학이란 동국대 뿐”이라며 “그 이유는 혈연 뿐 아니라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또다른 연(緣)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서성래 동문 가족은 훗날 손주들 또한 동국대에 입학해 1대부터 3대까지 동국의 연으로 이어졌으면 한다는 소원을 내비쳤다. 그들의 바람대로 동국과의 연이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회전무대

자아공부

○...우리대학이 오는 2011년도부터 편입생 선발시험에도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고 하니, 영어시험위의 기존 편입생 선발방식을 바꾸고, 발전 잠재력을 평가하여 더 나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이라고.

이는 우리대학이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라 더 의미가 깊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영어만 공부하던 당신, 이제 당신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빛 발하는 농구단

○...요즘 농구 코트의 조명은 유난히 밝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대학 농구 선수단이 한양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마음가짐을 다잡기 위해 단체 삭발을 감행했다고.

삭발 이후 고려대와 경희대에 연이은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니 승리를 위해 머리카락을 깎아준 격이로구나.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오는 7일 명지대전을 위해 삭발 한 번 더?!”

바닷 속 괴도 루팡

○...대한민국이 바닷 속 루팡에게 털렸다고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천안함 희생장병들부터 그들을 구조하던 저인망 어선, 게다가 해상 임무수행 중이던 링스헬기까지 모두 바닷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물 속에 대체 어떤 신중귀물한 대도가 살갈래 귀한 생명들을 인정도 없이 끌어가시나.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우리 청년들 잃은 자리는 국화 만 송이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산학협력중심 사업 2년 연속 선정

1차년도 사업 좋은 평가... 2차년도 사업비 30억 원 수주



우리대학이 지난해 ‘산학협력중심 대학육성사업’ 대학에 선정(選定)돼 올해 1차년도 사업 평가를 받은 결과,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2차년도 사업을 지속(持續)하게 됐다.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은 교육

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교육·연구체제를 산학협력 중심으로 전환, 산학협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대학은 2차년도 사업 지속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2차년도 사업 기간인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총 30억 원의 지원금을 계속 받게 된다.

현재 사업단은 우리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영화, 영상, 인문, 예술 분야 문화 콘텐츠와 IT기반 공학 계열의 기술력을 융합한 차세대 융합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사업 목표로 추진(推進)하고 있다.

한편 사업단의 총무로영상센터 이전(移轉), 임직원 축하 개소식 겸 사업성과 소개를 위한 ‘1차년도 성과발표회’가 지난 19일 엠베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성과발표회는 오영교 총장을 비롯해 사업추진본부차인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와 서울테크노파크 장동영 원장,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백석기 회장 등 약 250명의

교내·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과발표회에서 오영교 총장은 “본 사업을 위해 적극 참여해준 가족기업과 사업단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국가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수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단장은 “우리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문, 예술 분야의 콘텐츠와 공과대학의 IT분야 등 우수한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2차년도에는 더욱 활발한 산학협력사업 추진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학부교육선진화 사업 교과부서 1단계 선정

우리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주관하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1단계 심사를 통과(通過)했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교과부가 전국 10개 대학을 학부교육선진화 대학으로 선정해, 대학별로 특성화된 교육과 기초 및 소양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연간 30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대학은 수도권대학 1만 명 이상인 대학으로 분류돼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와 함께 1단계를 통과했다. 2단계 현장실사심사는 시설점검, 학생면담, 프리젠테이션 등의 내용으로 오는 12월 학내에서 실시된다. 교과부는 6월 초 최종 심의를 거쳐 수도권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 1-2개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대운동장 교육문화시설 건설 가능해 진다

서울시 도시계획위,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가결... 부지매입 착수

우리대학 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교육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가시화(可視化) 될 전망이다.

사업개발 1팀의 김규환 팀장은 “현재 공영용지로 지정돼 있는 운동장 부지를 공원 겸 학교부지로 중복(重複)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동의안이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결(可決)됐다”고 밝혔다.

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현재 국가 소유인 운동장·수영장의 2만 3,353㎡ 토지와 우리대학 소유 인야 1,439㎡를 합친 공간에는 공원과 지하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운동장·수영장 부지의 지상부에는 소나무 군락지를 조성하는 한편 잔디 동산과 산책로, 전망테크, 정자 등을 설치해 남산 본연의 녹지로 복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적인 캠퍼스로 조성된 공간은 학내 구성원은 물론 서울 시민을 위한 자연 휴식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지하공간에는 교육시설 및 각종 편의문화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서며 교육 복합시설은 지하 6층, 연면적 5만 9,170㎡의 규모로 공사가 진행된다. 학교 측 관계자는 “그 동안 자연 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제한지구, 주변 남산근린공원 등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교육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지하 공간의 개발로 학교의 고질적인 공간 부족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대학은 학교발전계획 ‘108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운동장·수영장 부지 개발을 추진해 왔다. 학교 측은 운동장 부지의 중복 결정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안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로 묶여 있던 운동장·수영장 부지를 매입해 본격적인 친환경 캠퍼스 조성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4.19 혁명 이끈 故 노희두 선배 흉상 제막식

4일 동우탐서 열려... 동문 31명은 건국포장 받아

우리대학 4.19혁명계승자회가 4.19혁명으로 목숨을 잃은 열사들의 뜻을 기리고자 혁명의 주역이었던 故 노희두 동문의 흉상을 동우탐서 옆에 건립(建立)했다. 故 노희두 열사 는 4.19혁명 당시 우리대학 법학과 3

학을 모아 건립하게 됐다”며 흉상 건립의 취지(趣旨)를 밝혔다. 노희두 흉상의 제막식은 오는 4일, 동우탐서 옆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대학 동문 31명은 4.19혁명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국가보훈처로부터 건국포장을 수여(授與)받았다. 건국포장을 받게 된 31명의 동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사망 시 사유리 국립묘지에 매장된다.



역사(驛舍) 속 동국 지난 26일 서울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와 개철 구 안 쪽 계단 등 역사 내 총 3곳에 우리대학 광고가 게재됐다.

박유리 수습기자 riri@dongguk.edu

Pride Dongguk - 자랑스런 선배님과의 대화 -

- 일시 : 2010. 5. 6(목) 17시 시작
- 장소 : 본교 홈페이지 참조
- 초청 분야 및 강사

분야	초청 선배님	직책	강의실
정치계	이정현	국회의원	교무위원회의실
	박영훈	영화감독	경영관
문화·예술계	최준용	탤런트	MBA203
	이재용	MBC 아나운서	학림관
방송·언론계	노윤구	KBS PD	소강당
	김진익	국민은행 경기본부장	경영관
산업·금융계	노주혁	한국자산관리공사 투자사업본부장	MBA201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국장	다향관
공직계	이계문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장	세미나실
	문한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법학관
법조계	김후곤	부장검사	B258

- 참가대상 : 재학생 · 휴학생 중 희망자 (선착순)
- 참가접수 : 4월 22일(목) ~ 5월 4일(화)
- 접수처 : 취업지원센터, 법과·경영·예술대학학사운영실
- * 각 분야별 접수자 선착순 30명에게 선배님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센터

미대사관 주관 환경특강 안내

<강연 주제>

“U.S. government, business and environmental NGO views on the COP15 conference and post-conference follow-up, U.S. climate legislation efforts, and an assessment of green technology and green growth in the United States.”

“미국 정부, 기업 그리고 환경 NGO가 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COP15)와 관련 후속 작업 및 미국의 기후 관련 입안 노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고 미국에서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을 진단한다.”

- 일 정 : 2010년 5월 11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학술관 덕암세미나실
- 강 연 자 : Norine Kennedy
- 주요직책 : Vice President, Energy and Environment Affairs, USCIB (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 주최기관 : 국제화추진단, 생태환경연구소, 주한미국대사관

진행방식은 강연(순차통역 포함)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각각 1시간 씩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제화추진단

2009학년도 중앙도서관 장서 현황 및 이용통계

1. 장서현황

장서수	단행본	국내서	국외서	고문헌	학위논문	비도서자료	계	비고
		895,823	142,943	31,723	119,911	62,199	1,252,599	
		국내		국외			계	
구독중 연속간행물	구입	633	8,668	474	909	1,107	9,577	2008학년도 대비 단행본 장서수 21,798책 증가
	소강	10,656		2,189	34종	28,048종		

* 40,211책 단행본 제적 처리 책수 차감 (2009학년도 20,446책 포함)

2. 이용통계

가. 출입통계

출입 현황	구분	중앙도서관 출입자수	중앙도서관 1일 출입자수	비고
2009학년도	2009학년도	1,573,723	4,769	열람실 출입 356,732 포함
	2008학년도	1,296,388	4,086	

* 2009년 8월 12일 중추 열람실 개관 (열람실 개관 연중무휴) * 개관일수 330일

나. 대출통계

대출 현황	이용자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기타	계	비고
		228,862	54,075	7,291	2,836	31,173	324,237	
1인 대출책수	1인 대출책수	18.13	16.99	13.99	9.99	4.68	13.93	전년 대비 1인 대출책수 2.9% 감소
	1일 대출책수	693.52	163.86	22.09	8.59	94.46	982.54	

* 기타:학부와 대학원의 휴학생, 특별열람용 이용자(수료생, 졸업생, 강사 등), 전산원 재학생, 경주캠퍼스 이용자 등

다. 단과대학별 대출통계

구분	2009학년도					2008학년도		비고
	1학기 학생수	2학기 학생수	평균 학생수	대출책수	1인 대출책수	1인 대출책수	1인 대출책수	
불교대학	265	244	255	7,318	28.75	27.11	32.36	전년 대비 2.9% 감소
문과대학	1,384	1,302	1,343	36,405	27.11	27.11	32.14	
이과대학	821	743	782	12,006	15.35	15.35	18.47	
법과대학	650	573	612	15,600	25.51	25.51	28.24	
사회과학대학	2,115	1,988	2,052	37,960	18.50	18.50	21.53	
경영대학	1,812	1,772	1,792	27,631	15.42	15.42	15.57	
생명(자연과학)대학	463	442	453	9,132	19.72	19.72	21.09	
바이오시스템대학	209	198	204	1,375	6.58	6.58	7.58	
공과대학	2,322	2,127	2,225	28,978	13.03	13.03	15.15	
정보산업대학	749	756	753	13,461	17.89	17.89	22.68	
사범대학	1,186	1,127	1,157	24,536	21.22	21.22	24.73	
영상미디어대학	368	353	361	3,859	10.70	10.70	11.55	
예술대학	648	622	635	10,601	16.69	16.69	18.57	
계	12,992	12,247	12,620	228,862	18.14	18.14	21.04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2단계 사업 지난 29일 착공 약학관, 종합강의동 등 9천여평 규모 ... 각각 내년 2월과 8월 완공 예정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2단계 사업인 약학관과 종합강의동 건립 공사가 지난 29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약학관은 지상 7층, 지하 2층, 건평 약 6천 6백여 평의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약학관 내에는 세포배양실 등 각종 실험실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종합강의동은 건평 약 2천여평 규모, 지상 5층으로 지어지며 강의동 내에는 교수연구실, 세미나실, 실험공간 등이 마련된다. 약학관과 종합강의동은 각각 내년 2월과 8월 완공 예정이다. 특히 약학관의 경우 내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약학대학 추진 상황 등을 평가받기 위해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공사에 박차(拍車)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일산병원 인근에서 열린 착공식은 이사장 정연스님, 오영교 총장, 상임이사 성관스님을 비롯해 중

양종회의장 보선스님, 최홍철 경기도 부지사와 강현석 고양시장, 김영선 국회의원, 백성운 국회의원 등 내·외빈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영교 총장은 착공식을 통해 “바이오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동국대가 명문 사학으로 도약(跳躍)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정연스님은 치사를 통해 “약대 유지는 종단과 법인, 학교가 공동 노력해 얻어낸 결과”라며 “약학관과 종합강의동 건설을 통해 일산캠퍼스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사회학과 발전기금 1억 원 약정 잇따른 학과 발전기금 기부에 눈길

잇따른 학과 발전기금 기부 모아 약정금액인 1억 원 중 1천 행렬에 사회학과도 동참(同參) 만 원을 내놓은 상태다. 해 지난 26일 총 1억 원의 기부 사회학과 발전기금은 사회학 금을 약정했다. 과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세미나 지원 비용 등 사회학과의 각종 제반 시설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사회학과 교수 및 사회 학과를 졸업한 직원들이 뜻을

비구스님 전용기숙사 백상원 착공 약 85명 이용 가능... 오는 5월중 착공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스님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원은 지 들을 위한 기숙사 백상원의 신 하 2층, 지상 3층으로 지어지며 축공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 약 1천 549㎡의 규모(規模)로 공 인다. 사업개발 2팀에 따르면 현 사가 진행돼, 1인실 55개와 15인 재 백상원 신축공사를 위한 시 실 2개가 신설된다. 백상원은 약 공업체선정은 완료된 상황이며, 85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 3 5월 중순까지 주변 정리를 끝낸 월부터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 이후에 착공(着工)에 들어가는 다.

제 52회 1차 사법고시 36명 합격 역대 최다 합격자 배출, 2차시험은 6월 열려

올해 사법고시 1차 합격자 중 2010년도 제 52회 사법고시 1 현재까지(1일 기준) 집계된 우리 차 합격자는 1,963명으로, 시험 대학 합격자는 모두 36명인 것 의 커트라인 총점은 262점(평균 으로 알려졌다. 우리대학이 배 74.85점)이다. 출한 이번 사법고시 합격자 수 한편 제 52회 사법고시 2차 는 역대 사법고시 중 최다 합격 시험은 오는 6월 23일부터 26일 자수다. 까지 시행되며 3차 시험은 11월 법무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17일부터 20일까지 치러진다.

2010년 CPA 1차 합격자 43명

전체 대학 중 9위... 합격자수는 줄어

올해 우리대학 공인회계사 경영대 학사운영실 정경훈 (CPA) 1차 합격자가 43명으로 실장은 “올해 합격자 수가 작년 나타났다. 1차 합격자 수인 63명보다 줄 어든 이유는 정부가 1차 합격자 수를 지난해 1,922명에서 올해 1,275명으로 30%가량 축소시 으로, 전체 대학 공동 9위에 해 킨 것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 당하는 성적이다.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으로 선정

우리대학이 ‘경기도민 평생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대학 지정 사업’에 선정돼 사업이다. 지원금 5천 만원을 받는다. 평생교육대학으로 지정된 우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사업 리대학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은 경기도가 도민들이 보다 효 프로그램을 8월부터 11월까지 울적으로 학습하고 학습을 즐 길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총대의원회 비대위원장 강현석 군 선출

지난 14일 8개 단과대학의 대 대, 법과대, 사과대, 경영대, 공 의원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 의에서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 대, 사법대, 예술대 대의원장이 의에서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 참석해 만장일치로 강현석 전 원장에 강현석(사회4) 군이 선 (前)사과대 대의원장을 총대의 출됐다. 원회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출했 이날 회의에는 불교대, 문과 다.

졸업앨범 촬영 오늘(3일)부터 18일까지

졸업준비위원회가 졸업앨범 실내촬영은 학생회관 총여학 촬영을 오늘(3일)부터 18일까 생회실, 연화원에서 열리며, 실 지 실시한다. 외촬영은 명진관 앞과 팔정도 촬영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 주변에서 열린다. 후 5시까지이며 촬영 희망자는 우천시 촬영은 취소되며 각 학생증 또는 대체 신분증과 졸 전공별 촬영 일정은 졸업준비 업앨범 선금 1만 원을 지참 위원회 클럽 (club.cyworld. 해, 해당 시간에 명진관 앞으로 com/dgu21graduation) 을 통 모어야 한다. 해 확인할 수 있다.

융복합 학문체제로 새로운 대학 만든다 동국비전 2020(안) 공청회 21일 개최... 재원 1조원 소요


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해온 중장 기 대학발전 전략에 대한 동국비전 2020(안) 공청회(公聽會)가 지난 21일 이태랑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서 미래기획위원회는 2020년 동국대 발전의 목표(目標)로 ‘대 사학 진입’을 내세우고 목표달성을 위 한 행정시스템 개편과 학사제도 개편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또 ‘ACTIVE 동국인’이라는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 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공청 회는 오영교 총장의 인사말, 홍순직 미래기획위원장 비전 2020(안) 설명, 패널들의 지정토론, 자유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패널들은 미래기획위원회 경영전략분과장 이영면(경영학) 교수,

미래비전분과장 조종흡(영화영상학) 교수, 학문구조분과장 홍성조(산업시 스템공학) 교수, 경북대 사범대학 박 종렬 교수, 서울대 공과대학 한민구 교수, 총동창회 문병호 부회장, 김준(계 임멀티미디어공학) 교수, 김준태(컴퓨 터공학) 교수, 원충희 직원 노조위원 장, 박인우 총학생회장 등 약 200여 명 의 교수, 직원,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날 홍순직 위원장은 미래기획위 의 비전 2020(안)을 발표하고, 미래 교 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 한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미래기획위원회는 2020년까지 의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5대 사학 진입(進人)’을 제시했다. 5대 사 학 진입을 위한 교육 연구역량강화 전 략으로는 교수단 신설, 우수교원 및 석

학 초빙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또 글로벌 특성과 전략으로 불교학 관련 학문연구·각종 콘텐츠 강화, 영 화영상, 경찰행정, 국어국문 등의 기존 의 경쟁력 있는 학문 중심의 특성화, 의생명과학캠퍼스를 기반으로 BT 연 구 특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10년간의 발전전략을 위 해 소요되는 예산을 약 1조원으로 정 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교계(敎界) 차 원의 기부금 마련과 각종 민간자본 유 치, 의생명과학캠퍼스와 운동장 부지 개발, 기술지주회사·학교 기업 등을 통해 이를 조달(調達)한다는 계획이 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윤리성, 유연한 적용, 창의성, 관용, 다양한 능력, 정체 성을 지닌 ‘ACTIVE 동국인’이란 새

로운 인재상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ACTIVE 동국인’ 계획에 대한 패널들과 일반 참석자들의 의견 은 분분(紛紛)했다. 패널로 참석한 경북대 박종렬 교수는 “ACTIVE 동국 인이란 인재상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 고, 학부 개혁에 비해 대학원 개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한민구 교수 역시 “5대 사학 목표 달성을 위해 10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다”며 “우선 특화된 학문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고 이후,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지적과 의견들에 대해 홍순직 위원장은 “사회·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10년도 매우 긴 시간”이라며 2030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된 이유 를 밝혔다. 또 “비전 안을 달성하려면 구성원들의 합심과 단결이 절실하다” 며 대학발전을 위해 대학구성원 모두 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 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동악로에서
최진아 기자
gina@dongguk.edu



교수 인사평가

올해부터 교수들에 대한 인사평가에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장의 평가항목이 추가됐다. 학사운영실장이 교수를 평가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다. 무단 결강 여부, 강의 시간 임의 변경 등의 요소로 교수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 대학 및 학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의 요소로 평가하는 정성평가가 그것이다. 이같은 학사 운영실장의 교수평가에 대해 학교 측과 교수들의 의견이 팽팽하다. 교수들은 무단결강이나 강의시간 임의변경등에 대한 평가 등 정량 평가는 얼마든지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발이 있는 부분은 바로 정성평가다. 교육자로서 인격이나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평가하는 정성평가 부분이다.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대학발전에 대한 노력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들은 학사운영실장이 교수들과 접촉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의 인격이나 대학발전에 노력을 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번 인사평가 개편안을 만든 교원인사기획팀의 강형석 팀장은 “학사운영실장은 학과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 학과의 교수와 마주칠 일이 많아 평가군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평가군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교수들의 생각은 본부 측의 생각과는 판이하다. 사법대의 A교수는 “교수들과 학사운영실장과 접촉이 거의 없다”며 “교수를 알 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수의 인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평가 취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사회과학대의 B교수도 “조교처럼 늘 함께 다니는 사람이 평가한다면 모르겠지만, 자주 만나지 않는 학 사운영실장이 교수의 인격을 평가한다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측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유드립스 를 통해 직접 평가에 참여했던 한 학사운영실장은 “학사운영실장이 모든 교수를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며 “더구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교수와 대학의 상호 발전을 위해 교원인사 평가제도는 분명 필요하 고 평가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 다. 하지만 평가하는 사람이나 평가받는 사람이 공감할 수 없다면 제 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제 1회 반도체 학술상
임현식 교수 수상**



**불교학회장에
김용표 교수 선출**



임현식(반도체 학과) 교수가 한 국물리학회 정기 총회에서 제 1회 반도체 학술상을 수상했다. 임현식 교수는 반도체 연구활동과 학 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상을 받았다. 임 교수는 국제 순수응용물리협회(IUPAP)로부터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바 있다.

김용표(불교학 과) 교수가 지난 10일 열린 한국불 교학회 총회에서 제 19대 한국불 교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용표 교수는 BK21 세계화시대 불교학교육연구단장, 한국교수불자 연합회장, 한국종교교육학회장 등 을 역임한 바 있다.

재단 감사에 진만·진화스님 선출
지난 27일 이사회 개최... 총 8개 안건 승인




▲진만스님 ▲진화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재단 감사에 진화스님, 진만스님이 선임(選任)됐다. 재단이사회는 지난 27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 252회 이사회 를 열고 지난 2월에 감사 임기가 끝 난 진만스님을 재선임, 감사직이 만 료된 상운스님의 후임에 진화스님 을 선임했다. 진만스님과 진화스님의 임기는 교 육부 승인 이후 3년으로, 교육부 승 인은 약 1~2주 정도 소요된다.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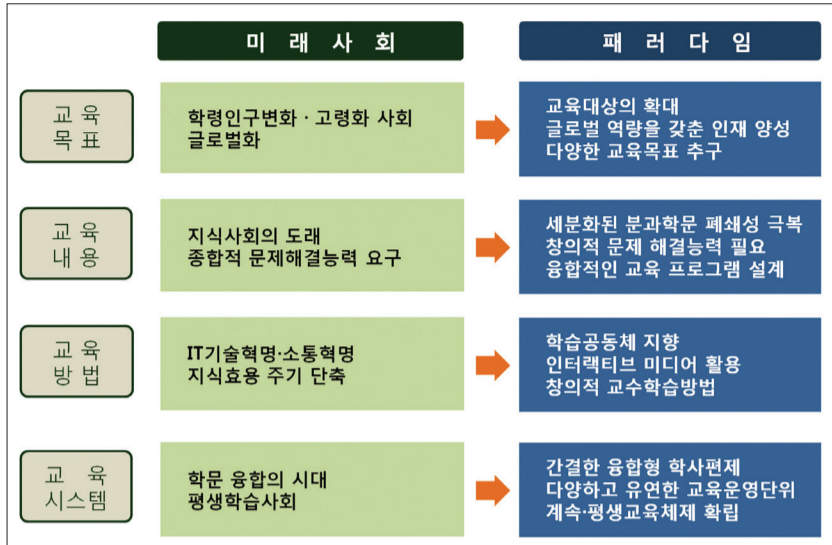
스님은 1981년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고려대장경연구소 부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조계종 중앙 총회 의원이자 서울 강남 봉은사 총 무국장을 맡고 있다. 진만스님은 1968년 화엄사에서 명선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화엄사 재무국장과 여수 흥국사 주지(住持) 를 지낸 바 있으며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11대~14대)을 역임(歷任)하 기 도 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 승인된 안 건은 △서울캠퍼스 비구스님 기숙 사(백상원) 신축공사 승인에 관한 사항 △일산캠퍼스 종합강의동, 약 학관 신축공사 승인에 관한 사항 등 이다. **이슬비 기자 beeya@dongguk.edu**

특별 기고 - 동국대 미래비전 2020(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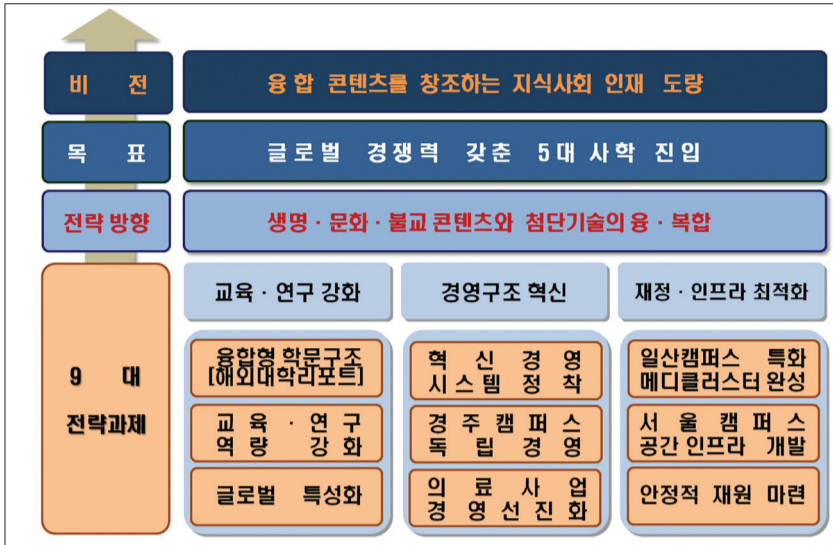
“융합학문 교육구조 가진 첨단대학이 목표”

첨단 생명·문화·불교 융합 ...향후 10년간 1조원 재원재달이 성공 열쇠

‘동국대 미래비전 2020(안) 공청회’가 지난 21일 열렸다. 이번 호에서 미래기획위원회의 기고 요청을 받아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표 1: 대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표 2: 융합 콘텐츠를 창조하는 지식사회 인재도량



▲표 3: 6바라밀을 재해석하고 반영한 미래사회의 인재상

‘동국대 미래비전 2020’(안)은 △미래사회 교육환경의 변화 △동국대학교의 현주소 △동국대 미래비전과 목표 △미래 전략과제 등 크게 4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미래사회 대학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줄 주요한 요인들을 살펴보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출산·고령화 △글로벌화 △지식사회 가속화 △정보기술의 발달 등으로 압축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노동인구의 부족 현상뿐만 아니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경쟁력 없는 대학은 통폐합 될 것이고 살아남은 대학은 평생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창출해내야 한다.

전통적 분과학문의 한계를 드러내고 융·복합 학문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글로벌화에 따라 연구와 교육은 이미 한 나라의 좁은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었고 교육품질의 기준은 국제적 눈높이에 맞춰지고 있다. EU의 볼로냐 프로세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지식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거기에 비례해 지식의 수명은 짧아지고 있다. 전통적 분과학문은 한계를 드러내고 융·복합 학문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인지과학, BT, NT, 우주과학이 그 중심 혹은 촉매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선 개별적 전문지식의 습득에 앞서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사고력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기본핵심역량 학습이 필요하다. 교육방식도 교수와 학생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학습공동체를 지향하게 된다.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교육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변화가 불가피하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매가 대학 출현이 가능해졌다. MIT, 콜롬비아 대학 등은 이런 변화로 촉발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강의콘텐츠를 인터넷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다. 이런 미래사회의 예측을 대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도입시키면 (표 1)과 같다

1906년 전국 17개 사찰의 동참으로 명진 학교가 설립된 이후 올해로 개교 104주년을 맞았다. 60년대까지만 해도 3대 사학의 위상을 유지했으나 70, 80년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국내 10대 대학으로, 90년대 이후엔 중위권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70년대 이후 투자재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분교 설립, 의료원 건립 등 외형성장에 치중하여 질적인 교육투자에 소홀했던 것이 이런 하락곡선을 그린 주요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학문영역에서 능

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종교사학으로서 거버넌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외부의 평가를 분석해 보면 △교수연구역량 부족 △재정건전성 취약 △교수연구시설 부족 △경주캠퍼스의 타율적 경영구조와 평가격차 △국제화 기반과 역량 미흡 등의 극복과제가 도출된다. 2007년 이후 추진된 108 프로젝트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시스템의 혁신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중장기적 차원의 개혁 작업이었다. 그 결과 책임경영 및 분권화 실행, 성과평가시스템, CS경영, 수요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앞으로 108 프로젝트는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동국비전은 그런 필요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새로운 비전을 세워가기 위한 긍정적 기회요인들도 적지 않다. 먼저 혁신시스템이 발전기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올해 2월 약학대학 인가로 일산 의생명캠퍼스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남산운동장, 충무로영상센터, 해화문 일대 등 캠퍼스 개발을 통한 공간 확충과 재원 마련의 가능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불교계와 학교의 동시 발전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고무적인 변화다.

학교발전의 전략방향은 생명 문화 불교콘텐츠와 첨단 기술의 융복합으로 설정했다.

사회 패러다임은 정보화 단계를 거쳐 지식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지식사회는 인구의 15%만이 산업생산에 종사해도 사회전 구성원의 물질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나머지 85%는 새로운 직업,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장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콘텐츠 산업 분야다. 최근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일상적으로 손 안에서 갖고 놀 수 있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전 산업과 지식, 문화 분야의 지평을 뒤흔드는 것은 그 예고편에 불과하다. 콘텐츠의 경쟁력은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전제로 했을 때만이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미래변화의 예측과 현재역량의 평가를 통해 도출한 비전은 ‘융합콘텐츠를 창조하는 지식사회 인재도량’이다.(표2) 융합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자는 것이다. 비전을 뒷받침할 전략 방향은 ‘생명·문화·불교 콘텐츠와 첨단기술의 융·복합’으로 설정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5대 사학 진입’을 목표로 잡은 것은 가능성과 목표지향성 두 지점의 균형을 고려해 설정했다. 올해 당장 서울캠퍼스 단독평가, 국제화 평가지표의 상승 등으로 국내 15위권 진입이 가시권 안

에 들어와 있다. 이런 추세를 이어 약학 분야를 필두로 한 연구역량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으로 2015년까지 국내 10위권에 진입하고, 일산캠퍼스 완성 및 연구역량 배가가 이뤄지면 2020년 국내 5대 사학 목표가 가능하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연구 강화 △경영구조 혁신 △재정·인프라 최적화 등 3개 영역에서 9대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교육연구 강화전략에 앞서 동국대는 어떤 인재들을 기를 것인가에 대한 교육철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보살(菩薩, Bodhisattva)’의 수행 덕목인 ‘6바라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상으로서 ‘ACTIVE 동국인’을 제시했다. (표3)

융합형 학문구조의 핵심은 기초학문을 튼튼하게 하고 그 위에 실용성과 특성화를 구현하는 형태로 교육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다. 기초학문 분야를 통합한 기초학문대학을 대학시스템의 중심에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유사 및 관련 분야의 학과들을 특성화대학과 실용분야 대학으로 재편하여 교육과 연구 분야의 융합 시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기초학문대학이 중심이 되어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수해야 할 통합 교양교육인 ‘ACTIVE 인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 융복합 강화 중심의 핵심교양 과목과 외국어교육 등이 골간이다. 이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대학별 특성과 학생 수요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공이수 프로그램은 대학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기초학문대학 학생은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유 전공제로 운영되고 실용분야와 특성화 대학 학생은 자격이나 인증이 요구되는 전공별 심화학습 트랙을 밟아 가면 된다.

전공프로그램 외에 특별프로그램을 배치해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경영과 기술이 융합된 산학협력 형태의 직업교육인 M&T(경영·기술융합), 학·석사연계, 공공인재양성, 특성화 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원의 구조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일반대학원은 학위의 질이 보장되는 분야를 선별해 운영하고 전문대학원과 융·복합대학원 과정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도심대학의 장점을 활용해 공공분야, 영화, 불교, 문예 등을 특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사운영기관의 편제는 넓고 안정적인 틀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유연적으로 교수의 소속은 광역화하고, 학생의 전공과 진로 선택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연구역량 강화 전략의 핵심은 교수단 신설과 석학영입 정책이다. 학과로 나뉜 교수의 행정 소속을 교수단으로 광역화시켜 교수들이 다양한 교육과 연구 활

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수는 학과, 전공, 프로그램, 연구소, 프로젝트 등에 겸직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학문의 융·복합화는 활성화될 것이다. 학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전공 교수들임에도 교육·연구 활동의 장벽에 갇히는 일은 사라진다. 학교 입장에서 교수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융합형 학문구조의 핵심은 기초학문을 튼튼히 하고 그 위에 실용과 특성화를 구현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다.

일단 2~3개 분야를 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점진적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은 특성화 및 강점 분야에 석학을 영입하고 석학을 중심으로 드림팀을 구성해 최고의 연구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불교, BT, NT, IT, CT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경쟁력을 국내 최고로 만들기 위해 학생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트랙 설계, 진로지도교수제, 교육역량 평가지표, 전공리뷰제, 강의포트폴리오 의무화, 졸업생 품질 관리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글로벌 특성화 전략을 위해 EU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참여 등 획기적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기숙사, 영어강의, 외국인 교수·학생지원시스템 등 대학문화와 인프라가 글로벌화 돼야 한다.

불교는 동국대가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분야다. 글로벌 관점에서 불교학을 리뉴얼 하고 세계 최고의 콘텐츠를 보유한 불교도서관과 박물관을 구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영화나 게임과 결합해 불교콘텐츠를 대중화하고 뇌과학 등과 결합한 마음연구소(Mind Lab) 신설도 검토해볼 만하다.

CT 분야는 기초연구부터 산학협력, 전문가교육, 학교기업까지 밸류 체인을 형성해야 하며 뉴욕대 티시스쿨 등 세계적 대학과 제휴를 맺어야 한다. NT, IT 분야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제적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다른 분야의 융·복합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찰행정 분야는 BT, NT, IT 등 학제적 커리큘럼 편성으로 과학사전문대학원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8프로젝트로 시작된 혁신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학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과제로 평가지표를 업그레이드하고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행정분야 트랙제 등을 통해 교직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혁신경영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 재단과 대학 간에 비전 실현을 전제로 한 협력과 공조체계가 성숙될 필요가 있다.

경주캠퍼스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비하고 지역의 명문거점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독립캠퍼스로 위상이 정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경주캠퍼스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서울캠퍼스와의 협력 상생방안을 공유해야 한다. 이런 전제 속에서 경주캠퍼스의 독자적 발전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의료사업 경영 선진화를 위해선 의무부 총장을 중심으로 한 통합경영구조를 확립하고 국내 Top 10 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특화전략이 절실하다. 일산은 향후 10년간 동국대 최대의 기회요인이다. 일산캠퍼스 특화 및 메디컬러스터 완성을 위해선 병원, 의원, 양·한방 임상교육, 바이오대, 약대 등이 융합적 연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약개발 밸류 체인을 확립해야 한다.

여기에 R&D연구소, BT 관련 기업, 종합 의료복지타운,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면 메디컬러스터로 확대 발전할 수 있다. 일산캠퍼스는 또한 지역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한다면 지역거점대학으로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앞으로 10년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캠퍼스 공간·인프라 개발은 마스터 플랜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 중흥기가 결정으로 남산대운동장 개발이 해화문 개발과 연계해 가시화되고 있으며 충무로영상센터는 도심대학과 CT특성화 콘텐츠에 따라 개발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체육관 부지와 팔정도 지하개발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개발계획들이 현실화되면 부족한 공간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며 개발을 통한 재원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앞으로 10년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에 고착돼 바라보면 1조원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액수인 것 같지만 담대한 비전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면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매년 기부금과 정부연구비 수주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서울, 일산캠퍼스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최근 조성된 협력 분위기를 바탕으로 불교계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백승권 미래기획위원회 사무국장

□ 바로잡습니다 동대신문 제 1490호(4월 5일자) 7면 '인터뷰 - 기술지주회사 유효성 대표이사' 기사 중 '특허기술이 총 6개'를 '초기 자본금으로서 출자된 특허기술이 6개'로 바로 잡습니다.

인간의 사랑, 고뇌 빛어내는 신의 손

근대조각의 거장(巨匠) 로댕 전, 천재작가의 뜨거운 예술혼 볼 수 있는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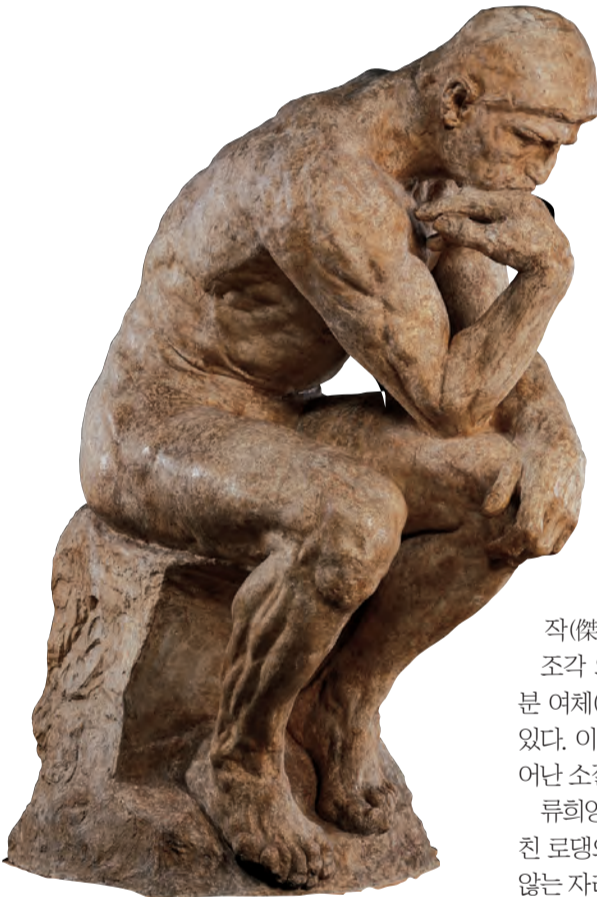
“그의 손길이 닿으면 아무 의미 없던 흙이 풍부한 표정을 띠게 되고 투박한 돌덩어리도 생명력으로 넘쳐난다”

근대의 미켈란젤로로 불리는 근대조각의 거장 로댕의 조각들이 지난 30일 서울에 상륙(上陸)했다. 한국일보사와 서울시립미술관이 파리의 로댕 미술관과 협력(協力)한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22일까지 열리며 180여점에 달하는 청동, 대리석, 석고 등의 다양한 조각 작품 및 드로잉으로 이뤄져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첫 회고전

프랑스 세기의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은 프랑스 하급관리의 아들로 3세부터 주먹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대표적인 작품인 ‘생각하는 사람’을 비롯해 다작으로 근대 조각의 새로운 지평을 연 거장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현재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만 세 곳에 이른다.

이번 전시는 로댕의 일대기를 총망라(總網羅)한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회고(回顧)전으로써 로댕의 예술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국내에서 로댕의 전시가 여러 번 열렸으나 대부분 소품 위주로 50점 정도를 선보이는데 그쳤었다. 하지만 이번 전시는 로댕의 삶과 예



술을 조명한 조각 113점, 드로잉 42점, 사진작품 25점 등 총 180점의 작품들을 연대기(年代記)적인 테마로 구성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전시다.

최초 해외반출 이뤄진 로댕 작품

또한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대표작들은 그동안 파리 로댕미술관에서 해외 반출이 금지되었던 작품들로 국내에 특별히 공수된 작품들로 엄선(嚴選)했다. 로댕의 대리석 작품 가운데 진수로 손꼽히는 ‘신의 손’은 1917년 이후 처음으로 해외 반출된 작품이다. 오른손에 아담과 이브를 묘사한 조각으로 신의 손을 형상화함과 동시에 로댕 자신의 손을 이입(移入)시켰다.

높이 1.8m의 초대형 채색석고작품인 ‘생각하는 사람’ 또한 최초로 해외 반출이 이뤄지는 작품이다. 특히 조각가로서 로댕의 이름을 최초로 각인시킨 초기작 ‘청동시대’는 놓쳐선 안될 작품 중 하나다. 오귀스트 네이라는 인물을 모델로 한 이 작품은 인체를 너무나도 생생히 표현한 나머지 “모델의 몸에서 직접 주물을 뜬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描寫)됐다.

대중에게 익숙한 로댕의 청동작품과는 달리 석고작품들은 작품의 보관과 운반의 위험성으로 인해 대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석고작품에는 작가의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만큼 로댕의 예술혼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

격정적 사랑, 뜨거운 예술혼으로

로댕에게 제자 까미유골로델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조각가였던 동시에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그녀와의 만남은 로댕에게 사랑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했다. 15년간의 정열적인 사랑은 비극적인 결말로 종지부(終止符)를 찍었지만 작품들은 그들의 뜨거운 사랑이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에 전시되는 석고작품 ‘키스’는 세계적인 걸작(傑作)으로 통한다.

조각 외에도 40여점의 드로잉 작품들은 대부분 여체(女體)의 움직임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그가 조각뿐만 아니라 드로잉에도 뛰어난 소질이 있음을 보여준다.

류희영 관장은 “장르별, 주제별로 전 생애에 걸친 로댕의 걸작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신의 손’ 94x82.5x54.9cm, 대리석, 1898~1902년(위) 대지 위로 솟아오른 오른손 안에 태어나고 있는 아담과 이브의 형상이 들어 있다. 이 작품은 ‘창조자 로댕’의 손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의 핵심적인 작품이다. 대칭을 이루는 ‘악마의 손’도 전시된다.

▲‘청동시대’ 181x66.5x63cm, 청동, 1877년(아래) 무명시절의 로댕은 1877년 억울한 스캔들에 휘말린다. 벨기에 군인 오귀스트 네이를 모델로 제작한 ‘청동시대’가 모델의 몸에서 직접 주물을 뜬 조각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로댕은 누명을 벗기 위해 살롱전 심사위원회에 모델의 사진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 스캔들은 역설적으로 로댕이 얼마나 뛰어난 조각가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제자 까미유골로델과의 불륜조차 뛰어난 천재성의 상징으로 용납될 만큼 극도의 추앙을 받았던 오귀스트 로댕. 다가오는 파스한 봄, 인간의 고뇌와 열정, 애증을 담은 180여점의 오귀스트 로댕의 뜨거운 예술혼과 마주해보는 것은 어떨까.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매체비평

천안함 사건과 언론의 보도태도

할버스탐과 천안함 보도

데이빗 할버스탐, 국내언론의 천안함 사태 보도를 보면서 그의 이름이 떠올랐다. 할버스탐은 월남전 기간에 뉴욕타임스의 사이공 특파원이었다. 당시 베트남에 선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죽어가는 미군 병사의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었다. 그런데 특파원이었던 할버스탐이 생뚱맞게도 베트남의 전투수행 능력을 찬양하고 나섰다. 그는 1965년도에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기존의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됐다. 그들은 정말로 잘 싸우고 있다. 세계 최강인 미군을 상대로 완벽에 가까운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 한 번 했던 실수는 두 번 다시 지지르지 않는다”



심재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할버스탐이 쓴 기사를 읽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존슨 미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고 한다. “내 군사가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 특파원이 어떻게 적군을 찬양하는가. 그는 매국노(traitor)임에 틀림없다. 뉴욕타임스는 할버스탐을 당장 소환함이 마땅하다”

물론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의 언론들은 오히려 자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월남전의 진실을 파헤친 할버스탐을 세계 언론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언론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 언론은 이번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고 있는 것일까. 국내 일간지와 지상파가 지금까지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북한의 소행임에 틀림없다”는 식의 다소 이중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듯이 보인다. 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국내 언론이 46명의 희생자에 대해 영웅화, 신화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산화한 이들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국내언론 보도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인 부분도 있다. 이들 젊은이에 대한 성급한 영웅화 작업은 오히려 독자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천안함 사태의 진실을 은폐하게 만들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낼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언론보도는 첫째도 정확하며 둘째도 정확하고 셋째도 정확해야 한다.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어머니가 그 당연한 말을 왜 했는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게 언론인의 사명이자 숙명이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전후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순식간에 두동강이 난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이에 대한 다른 가능한 모든 설명을 제거한 후 선회적인(spurious) 관계가 아님을 확실히 보여줘야 마땅하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 한달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그 진상을 밝혀줄 어떠한 확실한 물증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까 염려된다. 그렇다고 언론이 환상적인 상관관계(illusionary correlation)를 오도해 과거처럼 국민 가슴에 성급히 불을 지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국내외 언론의 영결식 보도처럼, 천안함 46용사가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가슴에 잠들었다. 한 순간의 국가이익에 연연하지 않았던 할버스탐처럼, 이제는 천안함 사태의 진상을 밝혀줄 물증의 확보와 함께 우리 쪽 초기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때이다.

천연특산품의
인삼복령·천마·지황·꿀로만든...

동목고

품목허가번호 000001

동목식품 부산 약용근자원연구소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이 민 용)
문의 전화: 02-2265-9156-7 031-774-9515
011-204-9154 011-470-2211
홈페이지: http://www.dongokgo.com

동목고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동목고는 천연물 재료인 인삼, 복령, 천마, 지황, 꿀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병후 회복기에 있는 병약자나 노인들의 건강 증진, 지구력을 요하는 수험생 또는 정신집중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며, 여성들에게는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며 변비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 성장기 어린이
- 수험생
- 직장인
- 노약자
- 허약자

Choco DONGOKGO

초코 동목고

자매품 초코동목고는, 동목고를 섭취하는 분들께 휴대가 간편하도록 만든 제품이며, 어린이나, 학생, 직장인, 여행자들에게 휴대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초코동목고로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세요.

제품의 종류 1kg/500g/300g과 자매품으로 초코동목고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싹트는 화창한봄날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나른해지기가 쉽습니다. 건강식품인 "동목고"와 "초코동목고"로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이 되세요. 감사한 분들에게 사랑과 효도를 표하는 상품으로 좋습니다.

◆ 판매처: 구내생활협동조합 (TEL. 02-2260-8949)

비교종교학 바탕으로 불교의 현재 성찰

김용표 교수 '포스트모던 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 출간



▲정우서적, 12,000원 / 318 쪽

불교학과 김용표 교수(이하 저자)가 지난 2월 '포스트모던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을 출판했다. 이 책은 비교종교학을 바탕으로 불교 안에서의 깊이 있는 종파 간 비교뿐만 아니라 한국민속종교와의 합합(滲合)문제, 심지어 그리스도교와의 대화까지 이끌어내 불교의 현재를 성찰하고 현대 불교의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고찰하고 있는 철학서이다. 또한 부처님의 교육원리와 교수법에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종교교육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

'포스트모던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은 '배타적 종교관을 벗어난 불교의 재해석', '붓다의 교육관으로 본 오늘날의 불교교

육', '세계종교로서 나아가기 위한 불교의 비전' 등 3가지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 1부에서 저자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 불교학 연구를 위한 비교종교학의 역할을 모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불교의 정토신앙의 타력성에 대해 신란의 교리와 루터의 그리스도교 교리를 비교, 연구하여 두 종교가 모두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비판적 인간관을 가졌지만 많은 이에 게 단순한 신앙방법을 제시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우리의 무교를 수용하였는지를 알아보고 무불습합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의 비교종교학적 관점은 불교 외적으로 폭넓은 종교 간 대화에 그치지 않고 불교 내적으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독자에게 더욱 성숙하고 새로운 이해의 관점을 제시한다.

이 책의 1부가 불교 내외의 대화와 성찰에 관하여 이야기했다면 제 2부는 인간의 보편적 종교성과 불교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종교의 자유와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 종교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간을 종교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야 참된 종교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현재의 종교 교육에도 투영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현대 우리사회의 불교 교육을 점검함에 앞서 위대한 교육자였던 붓다의 교육체계와 원리를 고찰하여 붓다의

교육원리가 가진 현대교육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즉 교육의 방법을 중요시 여겨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교수법을 적용하고, 권위주의적인 교사상을 벗고 제자의 좋은 친구가 되고자 한 붓다의 모습을 현실 교육에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인 죽음을 불교교육에서 어떻게 전달하여야 하는지를 붓다의 죽음 과정을 통해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붓다의 생과 죽음 전반에서 교육자로서의 붓다의 모습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근원적 성찰 후 저자는 우리사회 불교교육의 현재를 점검한다. 특히 7차교육과정 내용과 불교 교육 연합회, 대한불교진각종의 종교 교재를 비교하여 목표설정, 편집, 참고자료, 필진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순환적 교육과정의 구성을 위한 단일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교육은 결국 세계종교윤리의 공통성을 탐색해보는 과정이며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의 불교 5계가 보편적 지구윤리로서 바탕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막스 뮐러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종교를 바로 아는 길은 다른 문화와 사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다. 이 책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불교 역할과 불교 교육을 통한 세계 공동 윤리에 대한 모색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열린 정신으로 나아가는 데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연구 탐방

〈3〉 전통사찰선식연구소

사찰음식 대중화 위한 콘텐츠 개발

세계가 하나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길 원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 문화의 세계화 일환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통음식의 세계화 운동이 그 중 하나다.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은 웰빙 사찰음식

지난해 김윤옥 여사가 한국 전통음식의 세계화 운동에 사찰음식을 포함시키면서 사찰음식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웰빙 식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인공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조미료 및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요리한 건강식품인 사찰음식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다. 이에 우리대학 '전통사찰선식연구소'에서도 사찰음식의 한국화, 세계화,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전통사찰선식연구소'는 2008년 가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통사찰선식연구소'의 이십열 소장(가정교육학과)과 연구원들은 사찰음식의 세계화, 표준화, 대중화의 3대 가치를 내걸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다. 이십열 교수는 "그동안 사찰음식은 조리법 등이 일부 스님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졌기에 일반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았다"며 "전통사찰선식연구소에서는 사찰음식의 표준화를 위해 노승들에게 조리법을 녹취하거나 옛 문헌을 찾아서 조리법의 문서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십열 교수는 "불신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음식 교육과정'을 통해 일반 조리사 교육처럼 체계화된 규격을 확립함과 동시에 사찰음식이 사람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찰음식 교육과정'은 현재 우리대학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대학 외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대기까지 있을 정도이다.

과거 사찰음식은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추세에 맞춰 사찰음식이 웰빙 식품의 한 부류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종교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사찰음식의 어떠한 특징이 사찰음식을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게 만든 것일까. 이에 대해 이십열 교수는 "사찰음식에 쓰이는 주된 재료가 유기농 약용 채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교에서는 강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오신채(마늘·파·부추·달래·흥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덜어준다"며 "다른 웰빙 식품들과는 다르게 정신적 요소도 가미돼 있어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사찰음식은 음식재료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도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고 말했다.

'전통사찰선식연구소'의 주력 사업으로는 '대중화를 위한 사찰음식 문화 알리기'다. 이에 우리대학 '전통사찰선식연구소'에서는 정통성 있는 사찰음식의 조리법 및 효용을 대중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사찰음식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대중들이 쉽게 사찰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사찰음식과 관련된 여러 부서들과의 협력을 통해 영상이나 책자와 같은 콘텐츠 개발 또한 진행 중이다.

'전통사찰선식연구소'는 우리대학 구성원 및 일반 대중들이 사찰음식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다. 사찰음식을 단순한 종교의 음식에 국한 시키지 않고 한국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메뉴로 만드는 '전통사찰선식연구소'의 앞으로 성과를 기대한다. 최익대 수습기자 irchoi@dongguk.edu

조선건국 불교 의거 입증할 최초의 한글대장경

김영배 명예교수, '월인석보 제 25' 역주본 펴내

우리대학 김영배 명예교수가 한글로 만든 최초의 부처님 일대기인 '월인석보 제 25권' 역주본을 펴내 불교계와 국어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월인석보'중 제 25권은 보림사 소장의 보물 제 745호이다. 김영배 명예교수는 이를 보관 금고에서 꺼내 열람하고 역주작업 끝에 지난해 말 상권을 시작으로 최근 하권의 역주작업을 끝냈다.

김영배 명예교수는 또한 부처님의 가족과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이를 한글로 번역해낸 '석보상절 제 23·24 연구'도 펴낸 바 있다. 이러한 '석보상절'은 '월인석보'의 기저가 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월인석보'

의 창작 배경은 1457년 왕세자였던 도원군이 죽자 세조가 이를 애도하 여겨 부왕인 세종과 소헌왕후 및 도원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근 2년 동안에 걸쳐 증보, 수정하여 간행한 것이다. '월인석보'는 조선 세조 때 편찬한 부처님의 일대기로서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과 세조가 대군 시절에 지은 '석보상절'을 개고(改稿)하여 합편한 책이다. 조선 초기 국가 건설의 주역인 두 임금이 불교를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 그 수단으로 한글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당시 '월인석보' 한글본 출판 사업은 한글의 전파와 불교 진리 보급이란 두 개의 목표가 담겨있

다. 이들 책 내용은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불교 경전 상당수가 포괄된 것이다. 이는 왕들이 불교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첫머리에 '훈민정음'의 언해본을 실고 있는 '월인석보'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의 불경언해서이며 당시의 글자나 말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국어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월인석보'는 우리말을 글로 옮기는 최초의 시험단계에서 '주석'과 '해설', '보조 설명' 등을 경판에 편집형태로 구분해 판각해 놓아 다른 한문 경전보다 질적 우위를 보여준다.

이지연 기자 lly88918@dongguk.edu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10년 4월 1일 ~ 2010년 4월 18일

- 단위기금**
- 강태호(경주/교수, 5만원) 강화선(동문, 2만원) 고담스님(대학원/불교, 1,000만원) 김중성(기업/재단, 20만원) 김경호(경주/직원, 5만원) 김기호(경주/교수, 1만원) 김보성(경주/교수, 1만원) 김복순(경주/교수, 5만원) 김상겸(서울/교수, 5만원) 김수진(경주/교수, 1만원) 김순(경주/교수, 1만원) 김영미(불교/신도, 1만원) 김영성(경주/교수, 1만원) 김영자(기업/재단, 5만원) 김영제(일반/기타, 2만원) 김영희(경주/교수, 2만원) 김용기(경주/교수, 84만원) 김인홍(경주/교수, 2만원) 김중성(동문, 1만원) 김호성(서울/교수, 10만원) 김호창(경주/교수, 1만원) 나득영(경주/교수, 5만원) 이만연(일반/기타, 5만원) 류기형(경주/교수, 1만원) 류인수(경주/직원, 6만원) 박병찬(경주/교수, 1만원) 박성태(대학원/일반, 20만원) 박승윤(경주/교수, 1만원) 박정배(경주/교수, 1만원) 백광득(동문, 1만원) 설진태(기업/재단, 1만원) 손동진(경주/교수, 5만원) 손보호(동문, 2만원) 송문식(동문, 2만원) 신성철(동문, 1만원) 신해경(경주/교수, 1만원) 안영숙(기업/재단, 5만원) 양경승(기업/재단, 10만원) 오원옥(경주/교수, 2만원) 윤광태(경주/직원, 3만원) 윤주호(대학원/사회과학, 2만원) 이관(경주/교수, 1만원) 이기철(동문, 2만원) 이동욱(경주/교수, 1만원) 이미애(경주/교수, 2만원) 이상복(동문, 3만원) 이성우(기업/재단, 5만원) 이영경(경주/교

- 수, 5만원) 이영실(경주/교수, 1만원) 이윤호(서울/교수, 5만원) 이재균(불교/신도, 1만원) 이재학(동문, 1만원) 이종임(경주/교수, 1만원) 이종현(경주/교수, 1만원) 제경진장(일반/기타, 5만원) 정동원(서울/직원, 3만원) 정철(동문, 1만원) 정필원(경주/교수, 5만원) 정학수(동문, 2만원) 정호근(경주/교수, 1만원) 정희수(경주/교수, 1만원) 조용석(동문, 1만원) 조장성(동문, 1만원) 최덕규(동문, 3만원) 최경태(동문, 1만원) 최진수(경주/교수, 1만원) 하동영(경주/교수, 1만원) 하해웅(학부생, 1만원) 한국화장문화연구원(기업/재단, 600만원) 한민환(학부생, 1만원) 한영란(경주/교수, 2만원) 허상현(경주/교수, 5만원) 홍광표(경주/교수, 5만원) 황치영(경주/교수, 1만원)
- 병원발전기금**
- 김도균(경주/교수, 5만원) 김위동(불교/신도, 3만원) 김재학(서울/교수, 5만원) 김형준(동문, 1만원) 박광호(서울/직원, 5만원) 온상오(동문, 2만원) 윤영해(경주/교수, 5만원) 이만(경주/교수, 1만5천원) 이순옥(일반/기타, 10만원) 철은스님(동문, 2만원)
- 비지정발전기금**
- 강춘애(서울/교수, 10만원) 광주영(서울/직원, 1만원) 김계명(동문, 1만원) 김대선(스님, 10만원)

- 김민희(불교/신도, 1만원) 김병호(서울/직원, 3만원) 김봉균(동문, 2만원) 김영일(불교/신도, 4만원) 김영제(경주/교수, 3만원) 김정아(서울/직원, 1만원) 김경호(서울/교수, 5만원) 김호성(서울/교수, 3만원)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불교/기타, 5505만6천원) 박근서(서울/직원, 2만원) 박래호(서울/직원, 1만원) 박래훈(일반/기타, 1만원) 박정규(서울/교수, 10만원) 박종배(서울/교수, 5만원) 박현주(서울/교수, 5만원) 백경임(경주/교수, 10만원) 송경호(불교/신도, 1만원) 송미경(동문, 3만원) 송은경(일반/기타, 1만원) 신병수(서울/직원, 3만원) 신하균(서울/직원, 3만원) 양수희(동문, 1만원) 양한식(불교/신도, 1만원) 여영주(불교/신도, 1만원) 윤성필(동문, 2만원) 이권하(서울/직원, 2만원) 이근성(불교/신도, 5천원) 이수경(경주/교수, 5만원) 이원덕(서울/교수, 5만원) 이재선(일반/기타, 1만원) 이호원(동문, 3만원) 장기복(서울/직원, 1만원) 전병진(서울/직원, 5만원) 조정덕(일반/기타, 1만원) 조일재(동문, 1만원) 해관스님(스님, 5만원) 황순일(서울/교수, 5만원)
- 장학기금**
- (제)국립문화재연구원(기업/재단, 289만2백원) 강영진(동문, 2만원) 강지연(일반/기타, 2만원) 강호태(서울/교수, 23만1천원) 고철환(대학원/기타, 2만원) 곡진정(일반/기타, 1만원) 광동영

- (동문, 4만원) 구경덕(경주/직원, 2만원) 구한보(동문, 1만원) 권보드레(서울/교수, 23만1천원) 권순민(불교/기타, 1만원) 권오승(불교/기타, 2만원) 김홍모(서울/직원, 3만원) 김갑기(서울/교수, 4만원) 김경영(동문, 1만원) 김경표(경주/직원, 2만원) 김계인(서울/교수, 5만원) 김계현(서울/직원, 37만원) 김규태(대학원/교육, 5만원) 김규현(경주/직원, 1만원) 김규현(서울/직원, 3만원) 김근우(경주/교수, 23만1천원) 김금용(동문, 2만원) 김남영(동문, 5만원) 김대홍(서울/교수, 23만1천원) 김덕년(스님, 1만원) 김무봉(서울/교수, 7만원) 김미경(서울/직원, 2만원) 김미숙(불교/기타, 1만원) 김방욱(서울/교수, 37만원) 김범중(서울/직원, 5만원) 김봉주(서울/직원, 5만원) 김봉현(서울/교수, 37만원) 김봉하(동문, 2만원) 김상우(서울/직원, 2만원) 김상태(동문, 3만원) 김선우(불교/기타, 1만원) 김성규(경주/직원, 1만원) 김성수(동문, 3만원) 김성준(일반/기타, 2천원) 김성중(서울/교수, 5만원) 김세훈(동문, 2만원) 김순영(서울/교수, 10만원) 김승수(서울/교수, 23만1천원) 김애주(서울/교수, 10만원) 김영민(서울/교수, 5만원) 김영주(경주/직원, 5만원) 김영성(서울/교수, 30만원) 김영진(서울/직원, 3만원) 김영희(경주/교수, 2만원) 김용배(동문, 2만원) 김용석(학부생, 2만원) 김윤경(일반/기타, 3천원) 김윤태(일반/기타, 1만원) 김윤현(경주/직원, 2만원) 김의창(경주/교수, 10만원) 김인재(서울/교수, 37만원) 김인중(서울/교수, 37만원) 김재성(일반/기타, 1만원) 김재호(불교/기타, 1만원) 김정곤(동문, 3만원) 김정연(서울/직원, 3만원) 김중용(동문, 2만원) 김중진(서울/직원, 3만원) 김중현(동문, 10만원) 김승우(일반/기타, 5천원) 송문현(동문, 10만원) 송민규(서울/교수, 23만1천원) 성타스님(스님, 5000만원) 손경자(일반/기타, 1만원) 손상국(불교/기타, 1만원) 손성호(경주/직원, 3만원) 손승열(동문, 10만원) 손영수(일반/기타, 5천원) 송문현(동문, 10만원) 송민규(서울/교수, 23만1천원) 송석원(동문, 3만원) 송유준(일반/기타, 2만원) 송효영(동문, 5만원) 신기훈(서울/직원, 5만원) 신선철(동문, 5만

- 원) 신유경(불교/기타, 1만원) 신은희(동문, 2만원) 신재호(서울/교수, 67만원) 신정자(일반/기타, 1만원) 신지형(서울/직원, 2만원) 심경용(동문, 5만원) 심규홍(일반/기타, 1만원) 심익희(서울/교수, 3만원) 안승규(기업/재단, 30만원) 안종석(서울/교수, 37만원) 양동훈(서울/교수, 37만원) 양성용(서울/직원, 3만원) 노동영(경주/직원, 1만원) 노현준(서울/교수, 5만원) 등극조각화(동문, 1000만원) 류경자(불교/기타, 1만원) 류인수(경주/직원, 5만원) 모종배(동문, 10만원) 민용기(서울/교수, 46만7천원) 민준석(경주/직원, 3만원) 민정식(서울/교수, 5만원) 박광원(서울/교수, 2만원) 박광호(동문, 20만원) 박기린(경주/직원, 1만원) 박동채(일반/기타, 1만원) 박득현(경주/직원, 3만원) 박만규(서울/직원, 5만원) 박병관(서울/교수, 5만원) 박보경(불교/기타, 2만원) 박성관(서울/직원, 10만원) 박서진(서울/직원, 3만원) 박성훈(불교/기타, 1만원) 박순자(불교/기타, 1만원) 박인성(서울/교수, 19만6천원) 박정규(서울/교수, 37만원) 박정훈(불교/기타, 1만원) 박종휘(경주/직원, 1만원) 박창근(일반/기타, 3만원) 박태환(동문, 1만원) 박해구(경주/직원, 10만원) 박희상(서울/직원, 2만원) 박혜영(동문, 2만원) 박호선(서울/직원, 3만원) 박정민(서울/교수, 23만1천원) 백라관(경주/직원, 1만원) 변민우(서울/직원, 3만원) 불교대학총동문회(스님, 5000만원) 서동원(동문, 1만원) 서림기(기업/재단, 7만원) 서찬영(동문, 1만원) 석광열(경주/직원, 5만원) 성관재(서울/교수, 37만원) 성본스님(경주/교수, 20만원) 성상현(서울/교수, 23만1천원) 성타스님(스님, 5000만원) 손경자(일반/기타, 1만원) 손상국(불교/기타, 1만원) 손성호(경주/직원, 3만원) 손승열(동문, 10만원) 손영수(일반/기타, 5천원) 송문현(동문, 10만원) 송민규(서울/교수, 23만1천원) 송석원(동문, 3만원) 송유준(일반/기타, 2만원) 송효영(동문, 5만원) 신기훈(서울/직원, 5만원) 신선철(동문, 5만

▶9면에 계속



사설

‘스폰서 검사 사건’의 교훈

장경찬
법학과 교수

검사와 소위 말하는 스폰서와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백령도 천안함의 비극적 사태와 동시기에 발생하여 그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법작용의 기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걸린 만큼 그 결과는 지속적이고 방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조사와 당해(當該)사건에 대한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획기적인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관하여 국가 통수권자의 의견 표명부터 각계, 각층에 이르기까지 비논의의 여력이 빚발치고 있으나, 과연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보면 다소 실망스럽다. 법무부, 검찰은 이번 문제에 대하여 즉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이 사건 조사와 관련 조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한다. 하지만 조사위원회의 전원구성이 모두 현직 검사이라는 점은 그 위원회의 성격 기능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그 의도와는 달

리 조사의 공정성, 합리성, 타당성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규명(緝明)위원회는 교수 등이 위원으로 있으나,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 일각에서 소위 특검을 주장하는 논의가 있으나 이것 역시 당해 사건에 관한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현재까지 논의되는 것은 개별사건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한 논의에 불과하여 이 사건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어떤 해결책이 나와 매듭을 지을 수 있으나 또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과거에도 검찰 최고위직 인사 청문회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때에도 재발방지에 관한 논의는 있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재발가능성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

하여는 비리 발생 원인을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우선 무엇보다도 검찰내부에서 관련된 잘못된 과거의 관행 또는 관례로 내려오는 좋지 못한 구태를 의식적으로 단절할 결연한 의지와 그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검찰이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인적자원, 물적 시설의 보완은 물론이거니와 현실적인 활동에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객관화, 계량(計量)화를 통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최대한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검사들이 외부의 유혹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지 검사 개인의 청렴(淸廉)성과 도덕성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의 방지와 그때마다 조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 기관의 설립 또는 그 활동이 상시(常時)화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의 명칭 등과 같은 형식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기관의 구성도 검찰인사이외 사람들도 참여하여 국민 대다수가 납득(納得)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동국인들의 관심을 위한 전제조건

올해로 우리대학이 개교 104주년을 맞이했다. 동국의 역사가 한 세기를 넘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대학은 새로운 백년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또 다른 백년사를 이전의 백년보다 더 장엄(莊嚴)하게 써나가기 위해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대학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1일 미래기획위원회가 동국비전 2020(안)을 발표하고 학내 구성원들과 공청회를 가졌다. 미래기획위원회는 2020년 우리대학의 발전 목표로 ‘5대 사학 진입’을 내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현 학제의 대대적인 개편과 교수단의 신설 등 미래사회에 맞는 교육시스템으로 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10년 후의 동국대의 미래에 대한 토론의 장이었기에 동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발표된 내용에 대해 패널리스트들과 참석자들의 다양한 비판과 의견제시가 동국의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됐던 것에 비해 토론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공청회에 앞서 제공되어야 했던 비전 2020(안)에 대한 전체 자료 대신 요약본이 패널리스트들과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것이다. 사건의 정보에 대한 공유없이 이뤄진 토론이었기에 참석자들과 미래기획위원회 양측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자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동국의 또 다른 백년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우선 10년이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과거 동국 발전을 위해 마련했던 다양한 계획들이 유야무야(有耶無耶)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선례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발전계획에 대한 동국인들의 관심과 질책, 그리고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진실만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해군 장병 46명이 지난 29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安葬)됐다. 이들은 이제 전 국가적인 슬픔을 뒤로하고 영원한 안식을 맞이했다. 이들의 희생은 다시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이들은 모두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들이었다. 모든 국민이 제 자식, 남편, 아버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애통해 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처절한 슬픔 속에서도 유족들은 오히려 의연한 태도를 보여보는 이로 하여금 심금(心淸)을 울리게 했다. 구조 작업의 고비마다 성숙한 모습을 보인 유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천안함 장병들의 죽음은 원통(冤痛)하기 그지없다. 첨단장비를 탑재하고도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데다, 침몰 뒤 사흘 동안 선체도 찾지 못하는 등 초동 대처의 미흡함은 참화(慘禍)를 증폭시켰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슬픔에 젖은 유족들과 총격받은 국민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더욱 비참하게 한다. 사고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오히려 의혹만 부풀려지고 있다. 의혹이 증폭될수록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격양된 감정은 쉬이 누그러들 수 없다. 추후 사고 원인이 규명될 경우, 이에 대한 엄정한 처결(處決)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제 남은 건 희생당한 장병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사태의 진실을 한 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진실만이 46인의 장병들의 원혼과 유족들의 멍든 가슴을 위로할 수 있다.



메아리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부재자 투표소의 부재(不在)

▲1839년 마커스 몰튼은 단 한 표 차이로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당선됐다. 그와 경쟁했던 후보자는 당시 현직 주지사였던 에드워드 에버렛. 에버렛은 당일 투표참여를 독려(督勵)하느라고 그만 자신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했다. 그는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돼서야 투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투표소로 달려 갔다. 그러나 5분이 늦어 투표하지 못했고 한 표차로 선거에서 졌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명될 수 있는 주지사라는 자리를 단 한 표의 차이로 내주게 된 것이다. ▲지난 11일 서울 연세대에서 대학생유권자연대 ‘2U’ (20대 대학생의 이유있는 목소리)의 발족식이 열렸다. 현재 대학생유권자연대는 각 대학과 단체의 집행위원장이 모여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생유권자연대의 주된 목적은 2006년 치러진 지방선

거 투표에서 38.3%에 불과했던 대학생 투표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부재자 투표소 설치와 지방 출신 학생들의 진입신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학생유권자연대는 현행 2000명 이상인 부재자 투표 기준을 500명 정도로 대폭 낮춰 달라는 요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요청했다. 재학생 숫자가 2만 여명에 달하는 대학도 있지만 7000~8000명 정도인 대학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27일에 선관위 내 부재자 투표소는 2000명 이상의 부재자 투표 신청자를 넘은 12개의 대학에 그쳤다. 부재자 인정에 관해서도 그 기준이 모호(模糊)하다. 문제는 서울이 집이면서 사정상 학교에서 투표하겠다는 학생들은 신고서를 접수한 뒤에 따라 일부만 부재자로 인정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주소지와 학교가 동일성

활권인가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해당 동장이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재자 투표 기준을 선관위가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선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과 부재자 인정 기준, 그 어느것 하나 대학생들의 상항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단 한 표의 차이로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자리를 내줘야 했던 에드워드 에버렛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표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선관위는 매번 선거 때마다 한 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관위가 한 표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면 2000명이든 500명이든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 차원에서 전체적인 정책과 방침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문제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재자 투표에서의 한 표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 않는가.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장	유흔우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정용재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이과대학 3학년 재학생 학점 이수 관련 상담

2010학년도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점 이수 관련 상담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이수를 돕고자 합니다.

3학년 학생은 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 : 3학년 학과대표에게 신청기간 내 신청
※ 3학년 학과대표에게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상담기간에 이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하여 신청 가능
- ◆ 신청기간 : 2010년 5월 3일(월)~5월 7일(금) - 5일간
- ◆ 상담기간 : 2010년 5월 10일(월)~5월 21일(금) - 10일
- ◆ 상담시간 : 09:30-17:30
- ◆ 상담장소 : 이과대학 학사운영실 (02-2260-3750)

이 과 대 학

2010학년도 1학기 제2차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0학년도 1학기 제2차 강의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실시기간 : 2010.5.6(목) 10시~ 5.16(일) 24시까지
2. 평가문항 : 19문항 + (영어강의 5문항) + 건의사항
3. 학생참여방법 : 홈페이지(서울캠퍼스) - uDrims - 로그인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강의평가관리 - 강의평가등록
4. 기타사항
가. 교내·외 장학생 선발시 참여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나. 모든 해외연수 장학 선발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북미주 총동창회 초청 해외연수, 동국해외탐방, 총무역사탐방 등
다. 미참여자는 교내 장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모범장학금(1차 또는 2차강의평가 중 1회라도 미참여), 장학별 수석장학 및 영어강의장학(1차 또는 2차 또는 3차강의평가중 1회라도 미참여) 신청 불가
라. 강의평가는 학사행정 및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미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강의평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생여러분들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 강의평가는 uDrims 서버작업관계로 12시-13시, 20시-21시, 24시-01시에는 참여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평가에 대한 학생정보는 누출될 수가 없으며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학 사 지 원 본 부

2010학년도 2학기 UT Dallas 복수학위(학부) 학생 선발

1. 선발내용

국가	학교	선발인원	수학기간	지원가능 여학요건	홈페이지 주소
미국	Erik Jonsson School of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5	2년 (2010.9~2012.8)	TOEFL PBT 550 (CBT 213, IBT 80)	http://www.utdallas.edu

※ 상기 수학기간은 최소 재학기간임.

2. 지원자격
가. 학부 2학년이상 수료 공과대학 재학생(총 취득학점 65학점 이상)으로 해외여행 경력 사유가 없는 자
나. UT Dallas(Erik Jonsson School of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의 학과(전공)와 동일한 학과(전공) 소속 재학생
다.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수, 누계 평점평균 3.75이상인 자
라. 어학요건 (유학기간 내 어학성적만 인정됨). 상단의 지원 가능 어학요건 참조
마. 지원자는 단과대학에서 시행하는 면접에 참석하여야 함.

3. 제출서류
가. 지원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학업계획서(소정양식, 영문작성) 1부
다. 영문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공인어학성적표(TOEFL)
※ 반드시 유효기간내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마. 사진 1매 (3cm * 4cm) - 신청서에 부착
※ UT Dalls 홈페이지(http://www.utdallas.edu)에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학위, 전공, 교과과정, 학점 등)을 확인한 후 작성

4. 전형 일정

내용	기간	장소
신청서 접수	2010년 5월 11일 (화) 17:00까지	공과대학 학사운영실
면접	추후 개별공지	추후 개별공지
합격자 발표	2010년 5월 14일 (금) 17:00까지	개별공지

공 과 대 학

금주의 식단

월(5/3) 두부김치(2200)/치즈돈가스(3000)/새싹참치캔비빔밥(2200)/손마두국(2500)
화(5/4) 장조림백반(2500)/돈가스(2500)/치즈볶음밥(2200)/라면사리부대찌개(2500)
국수(5/5) 어린이날 휴무
목(5/6) 고추참치(2200)/양정식(3000)/테라야키치킨덮밥(2200)/순두부찌개(2500)
금(5/7) 햄구기(2000)/치킨가스(2500)/참치로볶음밥(2000)/설렁탕(2500)

월(5/3) 간짜개(2200)/치킨가스(2500)/쭈삼불고기덮밥(2200)/스팸김치찌개(2500)
화(5/4) 오징어두루치기(2200)/모듬가스(3000)/새싹참치비빔밥(2200)/닭곰탕(2500)
수(5/5) 어린이날 휴무
목(5/6) 비엔나볶음(2200)/피자돈가스(3000)/오므라이스(2200)/만두전골(2500)
금(5/7) 비빔만두(2000)/돈가스(2500)/새우볶음밥(2200)/원장찌개(2500)

월(5/3) 삼겹살야채비빔밥(2200)/고구마돈가스(3000)/계란햄볶음(2000)
화(5/4) 김치불고기덮밥(2200)/돈가스(2500)/닭고기비빔밥(2200)
수(5/5) 어린이날 휴무
목(5/6) 치킨골소스덮밥(2200)/피자돈가스(3000)/오징어덮밥(2200)
금(5/7) 체육덕볶음(2200)/치킨가스(2500)/쇠고기볶음밥(2200)

월(5/3) 유산술덮밥(2200)/치즈돈가스(3000)/새싹참치비빔밥(2200)
화(5/4) 닭갈비덮밥(2200)/부대찌개(2500)/매운오삼볶음밥(2200)
수(5/5) 어린이날 휴무
목(5/6) 체육비빔밥(2200)/돈가스(2500)/김치불고기덮밥(2200)
금(5/7) 낙지덮밥(2000)/떡김치찌개(2500)/치킨볶음밥(2000)



사진에 담은 禪 원류 찾는 만리길 여정

선학과 교수·학생, 중국 선찰(禪刹) 답사 사진전 중앙도서관서 개최

‘견성(見性)하면 성불(成佛)한다’ 수많은 절을 만들고 불교교단을 후원한 중국의 양무제(梁武帝)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을 때, 그 공덕은 없다(無功德)며 일갈한 달마대사(達磨大師)의 일화는 선종에서 강조하는 진리를 잘 보여준다. 현상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속에 갖추고 있는 불성을 인식하는 것이 곧 불교의 진리라는 것이다.

우리대학 선학전공 학부, 석·박사 과정의 구성원들은 지난 6월, 12월 중국 대륙을 종단하며 ‘선 불교’의 원류를 찾아 나섰다. 오늘(3일)부터 그들의 여정이 담긴 중국 선찰 답사 사진전이 열려 동국인들에게 중국 선사(禪師)들의 향훈을 전달하게 됐다.

보고, 듣는 재미가 있다!

오는 8일까지 도서관 내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선학전공 학부, 석·박사 중국 선종 선찰답사 사진전’은 보는 재미와 듣는 재미 모두 선사(贈呈)한다. 오늘 오후 1시 팔정도에서 문화예술 대학원 학생들의 사진전 개최 축하 국악공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진전 기획 단장인 덕산스님(선학 박사 학위 과정 3학기)은 “총 5만장의 답사 사진 중에서 동국인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사

진 200장 정도를 엄선했다”며 “이 사진전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중국 선종 사찰들의 사진 및 답사 여정을 담은 영상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답사에 참여했던 선학과 학생들이 사진전에도 참여(參與)해 여정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니, 사진 감상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학문적 열정으로 시작된 답사

선학과 학부, 석·박사 과정의 학생 및 교수를 포함해 약 25명이 참여한 중국 선찰 답사는 1, 2차로 나누어 각각 지난 6월과 12월, 선사의 숨결이 남아 있는 중국으로 향했다. 기획에서부터 일정 계획, 사진 자료 조사까지 처음 시도되는 해외 선찰 답사를 꼼꼼하게 준비를 하다보니 준비 기간으로 약 2년 여 정도가 걸렸다고 한다.

중국 선찰답사의 기획단장인 돈각스님(선학과 박사과정 수료)은 “책으로만 접하던 중국 선사들의 행적을 직접 경험(經驗)해보자는 학문적 호기심으로 답사가 기획됐다”고 밝혔다. 또, “국내 사찰 답사가 아닌 다수가 참여하는 해외 선찰 답사는 선학과 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중국 선찰 답사를 통해 중국 내 약 40개 사찰 스님들의 수행(修行) 및 담론도 이뤄져 한국 불교와 우리대학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순탄치 않은 만 리의 순례길

중국 선찰 답사 팀은 선종의 초조(初祖)인 달마대사의 행적뿐만 아니라 달마의 선맥을 잇는 2조 혜가 대사부터 6조 혜능 대사까지 선사들의 삶을 느끼기 위해 약 1만 리의 고행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은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한 ‘달마동’, 달마의 입적지 ‘백마사’와 같은 관화(觀化)된 곳 뿐만 아니라 길조(吉兆)가 있었지만 오지에 위치한 선가 오가칠종(五家七宗)의 하나인 황룡파의 발생지 ‘황룡사’, 선종(禪宗)의 일파인 조동종의 발원지인 조산사 등 총 40여개의 사찰을 방문했다.

교통로가 나지 않은 오지(奧地)에 위치한 사찰을 찾아가길 때마다 길을 잃어 일정이 지체(遲滯)돼 다른 사찰들을 방문할 시간이 줄어들어 아쉬웠다는 그들. 그러나 “현지인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늦은 밤길에도 무사히 길을 찾아 사찰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며 따뜻한 진정을 베풀었던 현지 중국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실했다.

중국 문화혁명의 영향으로 폐허(廢墟)된 선찰들이 많아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 답사팀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불교가 사회통합의 대안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위한 지원과 육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지에 존재하는 선찰의 경우 중국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아 보수(補修)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폐허 된 중국 선찰 안타까워

연광스님(선학 박사과정 3학기)은 “폐허가 된 선찰을 지키기 위해 몇 십년간 혼자 그곳에서 지낸 ‘보통사’의 여든 살 비구니 스님에게 깊은 불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들의 노력 덕분에 폐허가 된 선찰 곳곳에서도 선사들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遺物)들을 볼 수 있어 뜻깊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답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배움의 맛을 느끼고자 오는 7월과 12월에는 실크로드 답사를 갈 계획이라고 한다. 실크로드 답사 후 교내 사진전을 통해 동국인들에게 실크로드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싶다는 그들의 새로운 도전(挑戰)을 기대해 본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①2000년 역사를 간직한 현통사에서의 답사 현장 ②조동종의 발원지 조산사 현지스님과 교의 공양 ③조산사의 유물을 촬영하는 답사팀 ④중국 선찰 답사의 1만 리 길 이동경로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정각원 5월 봉축 행사 안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동국가족과 함께 나누는 다양한 봉축행사를 병행하오니, 동국인과 일반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구분	행사내용	비고
자비회사 (慈悲會社) 연등달기	1. 정각원 법당내 봉축 1년등 권선 ■ 집 수 : 5월 21일(금) 까지 ■ 보시금: 10만원 이상, (*법당밖 5만원 이하) ■ 집 수: 유드림스 신청, 방문신청 2. 재학생! 소원을 달아봐- “만원으로 나누는 만배의 공덕” ■ 기 간: 5월 21일(금) 까지 ■ 보시금: 1만원 ■ 집 수: 중앙도서관 연등신청부서, 정각원사무실 신청 ※ 모금된 보시금은 재학생에게 장학금으로 환원됩니다.	
봉축 연극공연	연극 ‘아버지의 가수’ ■ 일시: 2010년 5월 8일(토)~16일(일) ■ 장소: 이해랑 예술극장	누구나
동국예소리 공연	제2회 동국예소리 봉축공연(문화예술대학원 예술단) ■ 일시: 2010년 5월 10일(월) 18:00 - 19:30 ■ 장소: 정각원 법당	누구나
봉축 교직원 특별법회	■ 일시: 2010년 5월 12일(수), 17시 ■ 장소: 정각원 법당 ■ 법사: 월주 큰스님 (전 조계종 총무원장)	당일참여 누구나
‘리덕’ 사진전	정전스님과 함께한 ‘히말라야 신비의 불교성지 리덕’ ■ 일시: 5월 11일(화) - 21일(금) ■ 장소: 팔정도 중앙정원	누구나
연등축제 연등행렬	■ 일시: 5월 16일(일) 16:00 - 21:00 ■ 장소: 동국대학교 운동장 - 조계사 ■ 내용: 화합한마당(16시), 연등행렬 출발(18시~) ※ 화합한마당은 선학순 700명만 입장, 연등행렬은 누구나 참여 ※ 당일 참가자에게 행렬용 연등과 간식 제공합니다.	당일참여 누구나
봉축법요식, (동국예소리 공연)	■ 일시: 5월 21일(금) 08:30 - 11:00 ■ 장소: 정각원 법당 ■ 내용: 08:30 - 봉축법요식 10:00 - 동국대 예소리 축하공연	당일참여 누구나

※ 문의: 정각원 사무실, 02) 2260-3016-8
<http://jeonggak.dongguk.edu>

박물관 2010년, ‘이달의 문화재’ 전시

본교 박물관에서는 2010년 5월부터 연중 기획으로 ‘이달의 문화재’란 테마를 선정 하였습니다. 매달 박물관 소장품 중 그동안 미공개 된 작품과 그 달의 의미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1층 상설전시실 내 ‘이달의 문화재’ 전시 코너에서 특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에게도 유물 관람의 폭을 넓히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이달의 문화재’는 그 첫 작품으로 5월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신라시대 금동탄생불을 전시합니다.

◇ 5월의 문화재 : 금동탄생불입상 金銅誕生佛立像
 | 높이 10.6 | 三國時代 : 新羅

이 불상은 왼손과 다리가 결실되었으나, 몸에 비해 큰 얼굴에 뺨이 통통한 어린이의 모습이다. 상체는 나신이며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위단이 반전된 형상이다. 오른손은 밀로 내려 땅을 가리키고, 왼손은 위로 올려 하늘을 가리키는 天地印인데, 오른손은 길어 거의 무릎 부분에 닿아 있다. 아이와 같은 얼굴에 통통한 몸, 천지인의 손 모습, 벗은 상체에 하체만을 치마로 가린 착의법 등 도상적으로 釋迦가 태어나자마자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天上天下唯我獨尊” 이라고 말씀하셨다는 탄생불임을 알 수 있다.

◇ 전시기간 : 2010년 5월3일(월)~5월 28일(금) 약 1달간
 ◇ 관람시간 : 월-금 (오전 10:00~오후 4:00)

제48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나는 지금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으로 간다

- 응모부문 및 제출편수
 - 시·시조 : 2편 이상
 - 소설 : 1편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 수필 : 1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예선
 - 작품제출기간 : 2010년 4월 19일(월) ~ 5월 10일(월)까지 (당일 도착분에 한함, 직접 접수 가능)
 - 작품 제출처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 제출 방법 :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http://munchang.dongguk.edu/>)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한 후 응모작품(원고지나 A4용지만 허용)과 함께 제출
- 응모 및 심사 : 주제에 상관없이 본인의 순수 창작 작품을 우편으로 응모하면 예비 심사를 거쳐 본선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여 학교로 통보합니다. 본선 참가자는 5월 29일(토) 10시 본교에서 열리는 백일장에서 제시된 시제에 맞춰 전국 고교 문사들과 문학적 역량을 겨루게 됩니다.
- 장학금 지급
 - 장원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2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차상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1년간 등록금의 36% 면제
 - 본교 재학 중 문단에 등단한 자에게는 졸업시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 ※ 신입생을 제외하고 직전학기 평점이 3.0 미만이면 장학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02-2260-8773